

# 定慧社

불기 2547년 겨울 | 제28호



교수논단 깨달음과 교화의 관계  
정혜탐방 황대선원 조실 활산성수活山性壽 큰스님  
목우만평 비질을 하는 이유  
학인기고 「대승기신론소별기」를 통해 본 수행법  
몽산범어(영역)3

송광사 전통강원

# 강원교육 講院教育



해방 이후 미국문명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상西歐思想이 급속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불교도 정체성整體性を 잃어갔고 이는 곧 승가교육僧家教育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일부 강원은 '강원'이라는 명칭 대신 세속적 의미가 짙게 묻어있는 '승가대학'이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강원에서 외국어, 컴퓨터, 꽃꽂이, 피아노 강좌 등 외전外典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적표 작성, 교수강의 일지의 작성, 학점제의 도입 등 세속화世俗化의 흐름은 더욱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다. 이제 강원교육에 세속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시대의 대세大勢로 자리 잡은 듯 하다. 따라서 전통강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게만 들리고 있다.

그러나 예불禮佛, 간경看經, 대중생활大衆生活 속에서 의식儀式과 습의習儀를 익히는 강원 교육체계가 결코 서구식 교육기법에 뒤지지 않는다는 목소리, 강원은 지식을 충족시키는 교육기관이 아닌 행해行解를 바탕으로 한 수행기관이란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에게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적 교육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대학체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훗날 논란의 소지를 분명히 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강원이 세속적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으로 본래의 역할과 의미가 퇴색되면서 어정쩡한 강원교육 이수를 회피하고 차라리 기초선원이나 중앙승가대학 등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학인의 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출가하는 스님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나 대학과정을 마친 고학력자들로, 출가 학력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 즉 예전에 강원교육을 받았던 스님들은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출가자가 많아졌다는 현실은 현재 강원교육 제도변화를 요구하는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세속 대학을 흉내 내는 교과운영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즉 세속을 제도濟度하고 중생을 구제救濟해야 할 승가에서 오히려 세속의 제도와 똑같은 교육제도를 흉내낸다는 것은 불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통강원에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받아들일 때에는 신중한 검토에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망각하면 우리불교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서구중심의 사상의 바다에서 남의 나라 지도를 펴놓고 표류하는 꼴을 면할 수 없다. 분명 강원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진리 자체를 몸소 체득하는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定慧社

불기 2547년 겨울호 | 통권 제28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방장스님 법어  
    계미년 음력 11월 보름 법문 | 범일 보성
- 6 교수논단  
    깨달음과 교화의 관계 | 원경
- 13 기획연재  
    14세조사 정혜국사 복암  
    15세조사 흥진국사  
    16세조사 고봉화상 법장
- 19 지대방 이야기  
    동안거 | 연옥  
    영혜사 스님 | 혜각  
    의왕이 되거라 | 혜산  
    수집가 | 능인  
    참회합니다 | 인석
- 24 정혜탐방  
    황대선원 조실 활산성수活山性壽 큰스님
- 30 목우만평  
    비질을 하는 이유
- 32 목우단상  
    음식과 수행 | 보명  
    초발심자경문 | 본공  
    상생죽필문 | 도해
- 36 경전 한 구절  
    타락하지 않는 길
- 37 바람소리 한 자락  
    발원 | 불각  
    설염 | 효산  
    보리방편문 | 보운  
    정전백수자 | 인범
- 43 시가 있는 풍경  
    망월회심 | 혜명  
    독백 | 향음  
    깨닫는 세월 | 해문  
    나 아닌 너의 눈물 | 능혜
- 47 학인기고  
    「대승기신론소별기」를 통해 본 수행법 | 대정  
    몽산법어(영역)3 | 해안
- 57 화보로 보는 강원 소식
- 63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 64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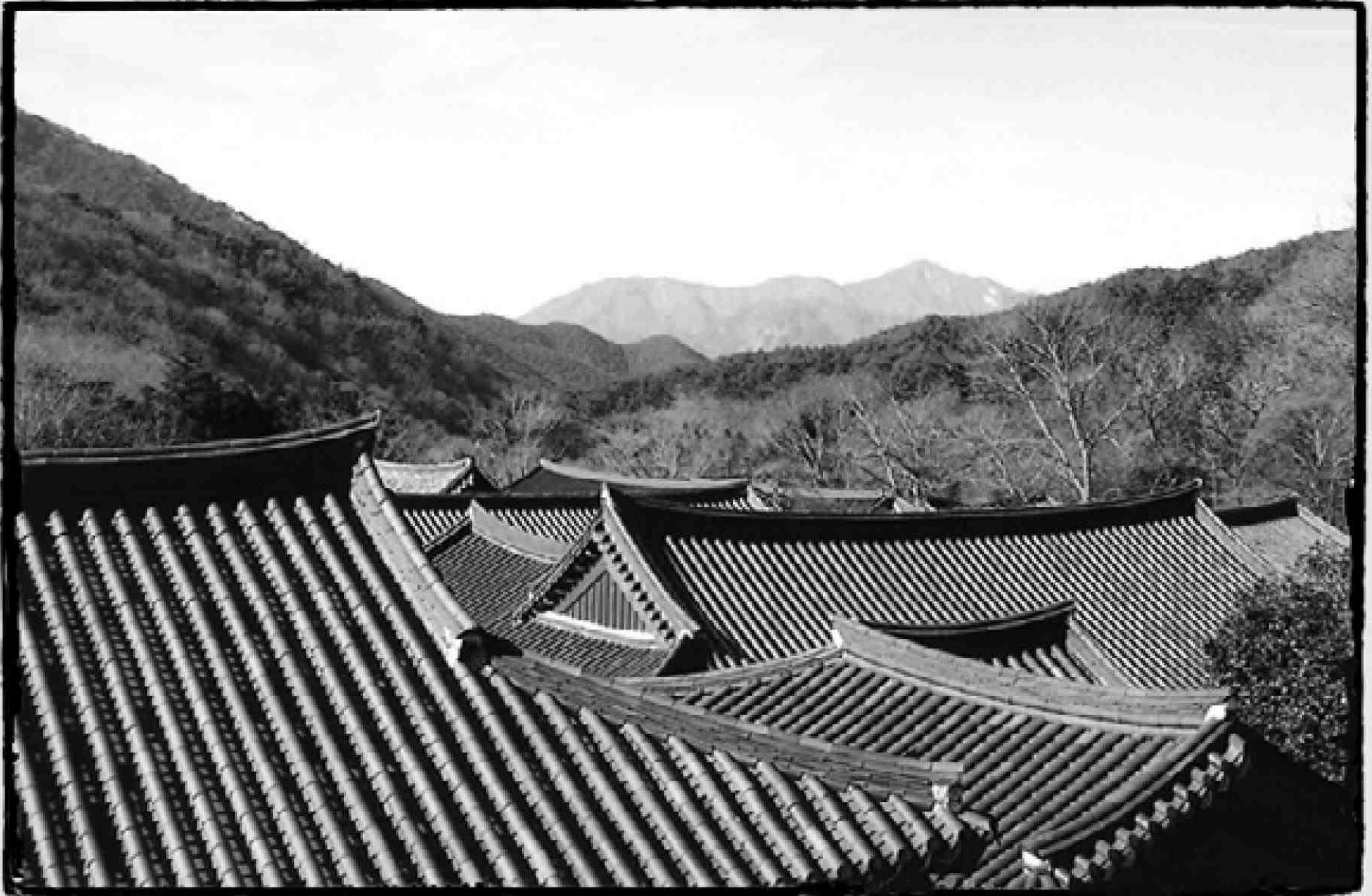


나한님 한 분 한 분  
조심스레 이운移運할 때 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모두 사라지고  
스님들 가슴에 품은 나한님처럼  
일대사 인연을 여의고자  
오늘도 묵묵히 수행정진 합니다.

글·사진 | 편집실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현진(강주)  
편집인 | 선혜(입승)  
편집장 | 인호  
편집 | 도갑·혜명  
사진 | 혜명

발행일 | 불기 2548년(서기 2004년) 1월 30일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 061) 755-5302  
인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秋風落葉滿空山  
古寺殘燈石壁間  
昔日徑行人去盡  
寒雲夜夜自飛還

글 | 교연皎然(?~799)·사진 | 편집실



갈바람 낙엽은 빈 산에 가득한데  
옛 절 등불은 돌벽 사이에 있네.  
지난날 에 거닐던 이들 다 가고  
찬 구름만 밤마다 밤마다 날아오네.

교연皎然(?~799) 당唐 때의 승려시인. 장성長城에서 태어났다. 성은 사씨謝氏. 위응물韋應物과 절친하였다. 시집에는 「서산집抒山集」 전 10권이 있다.

방장스님 법어

# 계미년癸未年 음력11월 보름 법문法門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옛날 사람은 벼슬이 높을수록 서민행庶民行을 하고  
학덕學德이 깊을수록 영아행 兒行을 했다고 한다.  
우리 비구比丘는 수행修行이 깊고 나이가 많을수록 사미행沙彌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허淸虛스님 말씀을 몇 마디 소개紹介 하고자 한다.

출가수도배出家修道輩는 재색최선금財色最先禁하라.  
군거수신구群居須慎口하고 독처요방심獨處要防心하라.  
명사상배석明師常陪席하고 악우물동금惡友勿同衾하라.  
어당리희소語當離戲笑하고 수역막혼침睡亦莫昏沈하라.

스님이 되어 공부하는 이는 먼저 돈과 이성을 멀리 하라.  
대중에 살 때는 입을 조심하고 홀로 있을 때는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  
큰스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나쁜 벗을 멀리 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혼침해서 자지 말라.

또

좌필향서좌坐必向西坐하고 행수시지행行須視地行하라.  
금서불리수金書不離手하고 외전막유정外典莫留情하라.

앉을 때는 서쪽을 향해 앉고 다닐 때는 땅만 보고 다니라.  
경전과 어록을 항상 지니고 세속 글을 즐겨 읽지 말라.  
하셨으니 이 얼마나 절실切實한 말씀인가!

초기선종初期禪宗의 선사禪師들은 일체一切 모든 것을 다 끊고  
오직 공부工夫만 몰두沒頭 했지만  
말세末世로 내려 올수록 근기根器가 하열下劣해져서  
능엄주백팔배嚴呪百八拜와  
극락발원도솔발원極樂發願兜率發願을 하게 되었으니  
요즘 수행인修行人은  
이 점을 명심銘心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월색화운백月色和雲白하고 송성대로한松聲帶露寒이로다.

달은 흰 구름과 함께 하니 더욱 희고 솔 소리는 이슬에 젖으니 더욱 차도다.

하좌下座. 定慧社

# 깨달음과 교화의 관계

원경元鏡 | 松廣寺講院 學監

ekayanawk@hanmail.net

프롤로그 : 혼돈에서 질서로

**제1 화두 : 깨달음과 교화의 관계**

제2화두 : 욕망해소의 불교적 이해

제3화두 : 성불의 현대적 의미

제4화두 : 사회현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

제5화두 : 수행의 이론과 실천

에필로그 : 행복과 정토사회 구현



과연 보통의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인류사에서 성인 聖人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평생을 봉사하며 살 다간 분들이다. 보통의 인간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처럼 보통 사람과 성인의 차이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남을 먼저 배려하는 가의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가한 스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의 깨달음[上求菩提]이 먼저인가,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 교화[下化衆生]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통해서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중토론을 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따라 그것이 각각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아주 크게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인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쪽을 지지한다.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대승불교사상에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



어느 작은 암자에 어떤 노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다. 때는 바야흐로 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날을 맞아 초하루 기도를 위해 신도들이 암자에 올라왔다. 먼 산에는 잔설이 아직 남아있지만 양지바른 곳으로는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나

뒤늦게 법당으로 향하던 몇몇 보살들은 노스님의 일련의 행동을 보더니 안연실색하며 비명을 지르면서 법당 앞으로 다가왔다. 법당 안에 있던 다른 신도들도 비명소리에 모두 밖으로 나왔다.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신도들은 무슨 일

초하루를 맞았는데 그래도 신도들이 오니 마음씨 고운 노보살은 불편한 몸으로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 사시마지를 올라가던 노스님은 꿩을 보자 오늘은 법당에 계신 등신불等身佛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몸이 허약한, 그렇다고

여래나 아라한도 과거에 지은 인과因果를 피할 수는 없지만 중생과 다른 것은 새로운 업業을 짓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새로운 인과는 없다는 것이다.

못가지에도 새순이 조금씩 움트고 있었다. 아직 벚꽃이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생강나무에는 벌써 노오란 꽃망울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겨우내 삭막하기만 하던 산빛이 연록색으로 물들어 가고 이제 천지에는 봄기운이 완연하여 양지바른 산모퉁이로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일부 신도들은 벌써 법당에서 절을 하고 있었고 노스님은 사시마지 시간이 되어오자 가사, 장삼을 수하시고 법당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 때 법당 옆으로 난 비탈길에 한 마리 장끼(숫꿩)가 살며시 기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노스님의 저만큼 뒤에는 몇몇 신도들이 기도에 늦지 않으려고 바삐 법당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 때 스님은 갑자기 주먹만한 돌멩이를 집어 들더니 꿩이 있는 곳을 향해 힘껏 돌팔매를 하는 것이었다. 순간 돌멩이는 허공을 날아가 정확히 꿩의 목덜미에 맞는 것이 아닌가. 꿩은 단 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널부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이 벌어졌는지 금새 다 알아버렸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무어라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노스님의 행동에 실망한 기색이 역역하였고 한 두 명의 신도들은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를 실천해야 할 스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고 난 후 이런 절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며 절을 내려가고 있었다.

왜 노스님께서 사시마지를 올리는 시간에 그것도 많은 신도들이 초하루 기도를 위해 절에 온 그런 상황에서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 대략 일주일 전, 오갈데 없어보이던 한 노보살이 절을 찾아와서 며칠만 머물 수 없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자세한 사정은 말하려고 하지 않지만 아마도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무작정 집을 나온 듯 보였다. 더구나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영양실조에 걸린 듯 초췌한 모습으로 사정을 하니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절의 형편이 넉넉하여 노보살이 편안하게 지낼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저럭 고민하다가

약 먹을 처지도 못되는 노보살, 살아있는 부처에게 특별히 공양을 올리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여 꿩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자신은 꿩을 살생한 과보로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라도 불쌍한 노보살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꿩이 죽어가는 것을 본 신도들이 소란하게 떠드는 상황 속에서 노스님은 “뭘 꿩을 잡아서 내가 먹겠다는 건가”라고 독백하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였다.

분명 출가한 비구로서 살생殺生을 한다는 것은 계율戒律에 어긋나는 행동임에 틀림없다. 비록 노보살을 살리기 위해서 꿩을 잡았다고 하지만 노스님이 꿩을 죽인 그 과보는 엄연하여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석존께서 열반하시기 전 등창으로 고생하신 것도 과거생에 우연히 곤충을 밟아 죽인 과보 때문이라고 한다. 여래나 아라한도 과거에 지은 인과因果를 피할 수는 없지만 중생과 다른 것은 새로운 업業을 짓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새로운 인과는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아직 불도佛道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큰 죄업이 아닐 수 없다.

초기불교의 승단에서는 수행의 목표가 자신의 해탈解脫에 맞추어



져 있었기 때문에 교법教法이나 계율도 협의적인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대승불교 교도들에 의해 '소승小乘'이라고 비난 받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초기불교는 출가수행하여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일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거나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이타적인 가르침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초기불교 시대의 부처님 제자들이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선택 사항일뿐 그것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었다. 결국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대승불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을 교화(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대승불교의 교리에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菩薩'이라고 하겠다. 그 가운데 지장보살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선명히 드러난다. 지장보살은 법신보살이다. 즉



지장보살은 대승불교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수행의 모델로 상정된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 가운데 한 분이다. 지장보살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존재이다. 이것은 대승의 수행자들로 하여금 지장보살님을 모델로 하여 그와 같이 수행하며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지장보살님은 누구인가. 어느 겨울 날 거리를 걷고 있는데 거지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지장보살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겹옷을 벗어 거지에게 주었다. 그런데 바로 그 거지 옆에 또 다른 거지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지장보살은 자신이 입고 입던 모든 옷들을 하나하나 벗어서 그들에게 주다보니 속옷까지도 다 벗어주게 되었다. 옷을 다 벗은 채 밝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할 수 없어서 그는 저녁이 되기를 기다려

땅을 파고 거기에 숨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의 유래가 땅 속[地]에 몸을 숨긴[藏] 보살이라는 의미에서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얼마간 꾸며진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도인道人이 지장보살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도 한다. 한편 지장보살은 수행을 하여 마지막 깨달음의 바로 직전 단계에서 자신의 성불을 잠시 보류한 채 고통 받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서원大誓願을 발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 특히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여 그들이 성불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진하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

지장보살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우선 제일 먼저 대승적 의미의 성불은 지장보살처럼 견성見性 이후에 끊임없는 보살행을 통해 최후 단계에서 완성된다는 점이다. 초기불교에서 자신의 번뇌를 멸진滅盡하여 깨달음을 얻는 아라한들을 석존과 똑같이 성불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석존은 완전한 깨달음[無上正等覺]을 얻고 보니 과거 무수억겁 이전부터 끊임없이 보살행을 실천해 오다가 금생에 수행을

지금 내가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전제된 것이다. 나의 조그만 수고가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봉사하면서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

하여 최후의 정각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타카(本生譚)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지장보살의 경우도 마지막 성불의 전 단계에서 최종 관문을 보류한 채 부단한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언젠가는 성불하겠지만, 이 사바세계에 한 중생도 남김없이 성불한 이후 자신은 마지막에 성불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체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을 통해 완전한 성불로서의 지혜를 완성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가 가능함을 지장보살의 경우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지장보살과 같은 보살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공(空)에 대한 철저한 자각(自覺)이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의 자각, 공의 체현(體現)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동체대비가 되어 진정한 보살행이 가능해진다. 지장보살은 자비(慈悲)의 화신(化身)이다. 자비(慈悲)란 상대방의 고통을 해결해줌(拔苦)은 물론 더 나아가 그에게 완전한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與樂) 한다. 진정한 자비란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없고 그 자비를 받는 사람도 없는 상즉(相即)의 관계, 서로 상대적인 주관과 객관의 이원구조가 해소된 상태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대승불교에서 설정한 지장보살

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다도 자신의 깨달음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타인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승적 의미의 성불이란 자리적인 수행을 통해서 결코 완성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대승의 모든 보살이 총체적으로 발원하는 '사홍서원'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승의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서원을 발하여 끊임없는 보살행을 통해 수행의 완성으로서의 성불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잠시 약간 다른 방향에서 전개해 보려고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유정(有情)으로서의 인간뿐만 아니라 유정, 무정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행복과 안락을 추구한다. 그것은 존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과 안락이 유한한 것이 아닌데도 누구에게나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조건과 심리상태에 의해 불안과 불행은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불행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업사회에서는 인간보다 물질이나 형식적인 가치가

더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 인간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다. 또한 산업사회의 구조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누구나 먼저 나만 편안한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세상이 더 불편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 누군가 자신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준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세상은 왜 점점 더 불행한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것일까. 반대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나와 남이 다같이 행복하고 편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심리기제는 참으로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면 그 순간 짜릿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소위 '찝찝하다'고 할까,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비록 자신은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되더라도 내 일처럼 남을 어려움에서 구해주면 누가 기뻐라, 말아라 하지 않는데도 가슴에 벽찬 기쁨이 몰려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리고 일상에서 흔히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양심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마음이 시커멓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옳다. 누군가 양심을 거역하면 마음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서 마음(意業)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자연히 마음은 무거운 색인 검은 빛깔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비록 자신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마음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짐을 느끼는 것은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서 의업(意業)을 맑고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심리 기제를 통해서 살펴보다도 이타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이 더 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 길이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불교에서는 선함과 악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아주 작은 것에서조차 손해와 이익에 대단히 민감하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 집단과 집단의 갈등은 대부분 이기적인 욕망의 충돌인 이권(利權)으로부터 야기된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조금만 손해가

되어도 불같이 화를 내며 남들과 싸우지만, 어떤 경우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면 좋아라 하는데 그것이 중생들의 세계이다. 불교에서는 이기적인 것이 악(惡)이요, 이타적인 것이 선(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선행(善行)이란 누군가 이타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었을 때 이름붙이는 말이다.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행위는 먼저 남과 나 사이에 일체감을 통해서 일어난다.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식의 양분된 생각이 그 사람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한 남을 도와주는 행위는 일어날 수 없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활활 타는 불길에 뛰어들어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자신도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매사에 있어서 도움을 받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과의 법칙은 엄연하여 남을 도운 행위는 메아리가 되어 언젠가는 선한 결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인간이 사는 현상 세계는 연기(緣起)의 법칙성 속에서 각각의 존재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제석천의 인드라망 경계(境界)<sup>1)</sup>처럼 모든 존재와 존재는 네트워크망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어느 한 존재가 불안하거나 불행하면 그로 인하여 다른 존재에게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닌 우리들 자신의 일인 것이다. 근래에 지구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웃 나라에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그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지구 네트워크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양계송」 가운데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숨어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소홀하기 쉬운 물 한 방울에조차도 그 물이 나에게 오기까지 온 우주의 시공을 초월한 일체 모든 존재들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톨의 쌀에는 그 안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숨은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

1) 제석천(帝釋天)인 Indra(인드라)가 사는 제석천궁에는 궁전을 장엄하는 그물망이 있는데 각각의 그물코 마다 보배 구슬이 붙어 있어서 각각의 그물코에 달린 보배 구슬은 다른 일체의 보배 구슬을 비추고 그 하나하나의 보배 구슬이 다른 일체의 보배 구슬들을 서로서로 비추듯이 서로가 서로를 투영하는 연기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즉 이것은 하나하나의 존재 속에 일체의 모든 존재 요소가 들어 있어 일체의 모든 법이 중중무진으로 상즉상입한다는 화엄의 중중무진 법계연기를 말한다(因陀羅網境界門).

들과 그와 관련된 많은 인연들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이 필요한데 그것과 관계된 수많은 인연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비료는 석유류제품이기 때문에 정유회사 관계자, 유류의 운

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관계가 되고, 서

걱정하기에 겨워할 뿐 다시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해야지 하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먼저 살고 나서 다른 사람을 구해야지 하는 생각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좁게는 자신의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고, 넓게는 자신이 수행하여 얻은 공덕을 이웃에 회향廻向함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토淨土로 만드는 작업일 것이다.

송자, 비료를 생산하는 사람, 판매자, 또한 석유의 원질原質인 과거 수 억 년 전의 생물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존재 등등... 이렇게 생각해 나가다 보면 하나의 사물 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하나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듯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어느 작은 물건을 들어올리는 순간 그와 관련된 온 우주적 존재들이 줄줄이 떨어져 들어올려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중중무진의 법계인 것이다.

지금 내가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전제된 것이다. 나의 조그만 수고가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봉사하면서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간혹 현상 사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물론 동등한 가치로서 물건과 물건, 노력과 노력이 교환될 수 있지

로서로를 사랑과 행복으로 비추는 삶이 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될까.

간혹 자신의 깨달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사실 이 비유에 비추어보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우선 먼저 자신부터 물에서 빠져 나온 후에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중생의 차원이다. 개인적으로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성취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깨달음의 수행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과연 그가 어떻게 도업道業을 이룰 수 있겠는가. 또한 만일 자신만의 깨달음을 목표로 하고 수행한다면 그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는 생각을 내지 못할 것이다. 보편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용케 살아나면 자신의 안위를

옛 선사禪師들이 말씀하시기를 선禪을 수행하는 남자衲子들은 좌복에 앉기 전에 반드시 '일체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대 서원을 먼저 내라고 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먼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생각과 그 차원이 다르다. 자신만 깨달음을 얻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자신의 진정한 깨달음조차도 얻을 수 없다. 자고로 수행자는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온 중생을 구제하려는 크나큰 서원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짐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참다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이기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하면 교묘한 지식知識을 동원하여 권모술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속아주기 전에 제일 먼저 자신의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누군가 남을 속이려고 마음을 낸 순간 그 사람의 우주심이 뒤틀려 번뇌의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자신의 하늘 전체는 부정적 에너지가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타심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내면 제일 먼저 자신부터 즐거워지고 나아가 그 마음으로부터 지혜(智慧)가 생겨서 결국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방법이 생긴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롭고 좋은 상황에서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려고 마음을 내면 거기에서 긍정적 에너지가 흘러나와 그 사람의 우주심 전체를 행복으로 물들이게 된다. 행복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통해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수행을 통해 성취하려는 지혜라는 것도 남을 돕는 과정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대승의 불자들이 하는 네 가지의 서원 가운데 '끝없는 중생을 맹세코 제도하리라'는 것도 가깝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여기서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길이 곧 자신의 구제하는 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일상의 일례를 통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행위(下化衆生)가 곧 자신의 깨달음인 지혜를 성취하는 방

법이라는 논리를 전개해 보려고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한 번 살펴보자. 가령 어머니 또는 아내가 자식과 남편 또는 부모를 위하여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 요리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고기를 잡아 요리를 할 때 비록 자신은 고기를 잡은 업(殺生)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 음식을 먹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할 것이다. 한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어머니가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족들이 건강하게 그들이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희생이 한 가족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아가 그 사회를, 국가를 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이 전제되지 않은 튼튼한 국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어머니와 같은 마음은 곧 지장보살의 마음이며, 비록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로써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접어둔 채 다른 가족을 위해 정성을 바치는 이타적인 희생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행위가 곧 자신의 지혜를 완성하는 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어머니들은 지장보살과 같은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퇴색해 가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과거 우리 옛 어머니, 할머니들이 보여준 지혜로운 어머니상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족에게 헌신한 지장보살의 화신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즈

음 많은 여성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아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지혜로운 여성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지혜를 성취하는 것은 한낱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웃을 돕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 깨닫게 된다.

자신의 깨달음이 먼저인가, 혹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곧 자신의 지혜를 성취하는 길인가 하는 논쟁은 대승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후자가 올바른 견해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좁게는 자신의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고, 넓게는 자신이 수행하여 얻은 공덕을 이웃에 회향(廻向)함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토(淨土)로 만드는 작업일 것이다.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깨달음만을 위해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욕망일 것이고, 불보살님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리라는 큰 서원을 실천하려는 욕망이야말로 대욕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전에서는 이와 같이 불보살님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대욕망은 욕망이 아니라 아노다라삼막삼보리(無上正等正覺)라고 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 곧 지혜를 성취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더 증명한 셈이다. **〔定慧社〕**

〈다음호 계속〉

기획연재

14世 祖師

정혜국사淨慧國師 복암復庵



15世 祖師  
홍진국사弘眞國師





16世 祖師  
고봉화상高峰和尚 법장法藏



## 14세조사

### 정혜국사淨慧國師 복암復庵

국사의 비문이 이미 오래 전에 인물湮沒되어 행장을 자세히 알 길이 없다. 다만 공민왕恭愍王 2년(1353)에 월출산인月出山人 연온衍溫 선사가 지은 백암산白巖山 정토사淨土寺 전장轉藏 제삼회방第三回榜에 이런 기록이 있으니,

“각엄존자覺儼尊者께서 재차의 왕사를 배수拜受하시고 이 망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갖가지의 공양구供養具를 갖추시어 조계산曹溪山 제14대 대화상大和尚을 주맹主盟으로 청좌하시고 제산諸山 장로長老 백여 명을 초집하여 같은 해 3월 11일 부터 약 10일 동안의 대법회를 거행하되 낮으로는 삼장三藏을 읽고 밤으로는 조교祖教를 말씀하시며 혹은 참선으로, 혹은 강경講經으로써 마치셨다.”

이 기록에 나오는 조계산 제14대 대화상은 곧 정혜국사淨慧國師로서 각진국사가 충정왕忠定王 2년에 백암산 정토사로 퇴은退隱하신 직후 바로 제14대 법주로 부임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다라에 상판上板된 위의 전장기轉藏記 후록後錄에, ‘주법主法 조계曹溪 십사대十四代 화상和尚 복암정혜復庵淨慧.’

여기의 복암정혜復庵淨慧는 곧 정혜국사의 재세시在世時 기록이므로 복암은 국사의 자호이고 정혜는 국사의 법명으로서, 나라에서 내린 시호가 아닌 듯하다. 그런데 국사의 정액幀額은 ‘복암화상復庵和尚 정혜국사淨慧國師’라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정혜국사의 정혜淨慧는 나라에서 관례대로 내린 시호에 해당하지만 비문이 없으므로 더는 상고할 길이 없다.

현대 대지국사大智國師(찬영燦英)의 비서碑序에 의하면, “나이 14세(즉 충혜왕忠惠王 2년)에 한빈漢濱에 노닐다가 세 봉우리가 높이 서 있음을 바라보고 초연히 세상을 벗어날 뜻이 있으사 중흥사重興寺의 원증국사圓證國師(곧 태고국사太古國師)에게 의지하사 머리를 깎고 법을 받으사 5년(곧 충목왕忠穆王 원년)에 우뚝하게 이름이 있으시고 정혜국사에게 나아가사 총림에 다달아 가지산하제이좌迦智山下第二座에 오르셨다.” 라고 하였으니 충목왕忠穆王 원년元년에

서 정혜국사가 조계산 제14대 법주로 부임한 충정왕忠定王 2년에 이르기까지는 겨우 6년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위 비문 중의 ‘정혜국사’는 조계산의 정혜국사가 분명하고 그 당시 ‘정혜국사’라 호칭한 것은 국사가 다른 국사와는 달리 생존시에 나라에서 국사로 봉함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국사의 법계法系는 국사가 조계산 제13대 법주이신 각진국사覺眞國師 복구復丘의 다음으로 14대 법주가 된 것이나 복구復丘의 복자復字가 든 법호인 복암復庵은 사형사제지간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 증거로는 각진국사가 백암산 정토사에서 전장대법회轉藏大法會를 거행할 적에 정혜국사를 주맹主盟으로 초청한 것을 들 수 있다. 각진국사는 그 당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원로스님이니 전장대법회에 달리 주맹대화상主盟大和尚을 초청함에 있어 국사와 동격同格이 아니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혜국사가 비록 각진국사의 뒤를 이어 조계산의 법주가 되긴 했으나 자신의 사제師弟인지라 전장대법회의 주맹으로 모신 것이리라. 정혜국사의 입멸入滅연대는 공민왕조恭愍王朝의 후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 15세조사

### 홍진국사弘眞國師

국사의 비문 역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 되었으므로 자세히 살피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한다.

국사의 정액幀額에 ‘제십오세第十五世 조사祖師 홍진국사弘眞國師’라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조계산의 제15세 법주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국사가 제15세 법주로 부임한 시기는 공민왕恭愍王 12년에서 동15년 사이일 것이고, 해임한 시기는 나옹왕시懶翁王師가 송광사松廣寺 주지住持로 부임한 공민왕恭愍王 12년 가을의 이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구大邱 동화사桐華寺에 홍진국사弘眞國師가 있는데, 그 비문에 의하면 국사는 유가종瑜伽宗의 스님이니 조계산의 홍진국사가 아님이 분명하다.

## 16세조사

### 고봉화상高峰和尚 법장法藏

스님의 휘는 법장法藏이고(일명 지승志崇) 법호는 고봉高峰이며, 속성은 김씨金氏, 황해도 신천愼川(지금의 신천信川)이 고향이요 어머니는 임씨林氏니 고려 충정왕忠定王 2년(1350) 신묘세辛卯歲에 태어났다.

어려서 출가하여 삼장을 이수한 후 선석選席을 마치자 제방에 다니면서 참선으로 일관하더니 나옹화상懶翁和尚을 배알하고 법을 받아 스승으로 섬기게 되었다. 일단 법을 얻은 뒤 천하를 주유하며, 성태聖胎를 장양長養하기 30여년, 스님은 머리가 길어도 깎을 줄 몰랐고 표주박 하나를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걸식으로 생계를 꾸렸으며 항상 피리를 즐겨 불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스님이 그냥 걸뱅이인지 숨은 도인인지 판별을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구러 30여년을 다니는 동안 안동부安東府 청량산淸涼山에 들어가 손수 암자를 짓고 은거하기도 했으니 그 절이 바로 청량암이다. 스님이 이름과 자취를 숨기고 걸인 행색으로 살은 데에는 정진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고려가 망하고 새로이 이씨조선이 건국되는 어수선한 세태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 해서 스님이 정변政變의 시류時流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수선한 세상 모습에서 무상無常을 절감하고 오로지 도를 닦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태조李太朝 4년에 남방의 여러 산을 유력하던 선사는 낙안군樂安郡 금전산金錢山 금둔사金菴寺에 이르러 유숙하더니 꿈속에서 매우 특수한 한 범찰梵刹을 보았다. 이튿날 선사는 다시 행각하여 마침내 조계산 송광사에서 다다랐는데 경내를 두루 살펴보니 바로 간밤 꿈에 보았던 그 절이었다. 그래서 속생의 인연이 있음을 깨닫고 문인 등과 함께 서원을 세워 송광사를 중신重新하여 옛 모습을 복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윽고 복원불사에 착수한 선사는 일은 크고 힘은 작은지라 바로 난관에 봉착했다. 그래서 나라의 힘을 빌려야겠다는 것을 절감하고 개경으로 올라갔다. 때는 정종定宗 원년, 선사는 궐하에 나아가 주상主上에게 상주奏하니 주상께서 윤택하셨으며 이듬해 7월

에 선사는 왕지王旨와 서운관書雲觀 비보안裨補案을 받들고 본사로 돌아왔다. 선사는 곧 모든 치소緇素에게 화주化主와 시주를 권하는 한편 대목大木인 운자雲疵, 상제尙濟 등 30여명을 청하여 재목의 길고 짧음과 터의 넓고 좁음을 구제舊制에 준하여 불법승 중 전당 서너채를 건축하고는 늙음을 빙자하여 주지직을 사퇴하였다.

선사는 다시 행각에 나서 경상도 각 사찰을 순력巡歷하였는데 정종定宗 4년에는 김해부金海府 신어산神魚山 각암覺庵에 주석하였으며 정종定宗 13년 여름에는 경주慶州 봉양산鳳樣山 원원사遠源寺에 안거하였으며 또 그 이듬해 봄에는 울산蔚山 불광산佛光山 태원암太元庵에 머물다가 4월 하안거 때에 본사인 송광사로 돌아왔다. 세종世宗 2년 조계종曹溪宗 대선사大禪師 중인中印이 송광사 주지로 부임하자 선사는 중인 스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증축 불사를 시작하였다. 이 불사에는 선사의 문인 10여명과 중인스님의 문도 십여명이 모두 적극 참여하여 9월에 이르러 거의 준공을 보게 되었는데 중인 주지가 개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선사는 주지직을 다시 맡아서 공사를 모두 마치고 겨울에 낙경회落慶會를 베풀고 좌선과 상축上祝을 겸행하고 두 문도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세종世宗 3년 7월 11일, 선사는 처음으로 미병微病을 보였는데 병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큰 방에 나아가 발우를 펴고 좌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몸은 점점 무거워져 갔다. 21일이 되자 아침 일찍 고당각웅古堂覺雄 스님을 불러 임종계臨終偈를 구술한 터이니 받아쓰라고 한다.

청정본연극령몽淸淨本然極玲瓏  
산하대지절점공山河大地絕點空  
곤노일체종하기昆盧一體從何起  
해인능인삼미통海印能仁三昧通  
칠십팔년귀고향七十八年歸故鄉  
대지산하진십방大地山河盡十方  
찰찰진진개아작刹刹塵塵皆我作  
두두물물본진향頭頭物物本眞鄉

청청 본연하여 지극히 영롱하나니  
 산하대지가 점이 끊겨 공하도다.  
 비로 부처님은 어디에서 이는가?  
 해인은 능인께서 삼매로 통달했네.  
 78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노니  
 대지 산하가 온 시방이로다.  
 티끌 같은 온 누리 모두 내가 지었나니  
 날날 물건들이 본래의 참고향일세.

임종계 율기를 마친 선사는 제자에게 유언하기를,  
 “나의 유해는 3년을 지낸 뒤에 안처에 값으라.” 하고  
 는 엄연히 서거하였다. 문인들은 도유하여 그 유해를  
 함에 넣은 뒤 스승님의 유언대로 침실에 모셔 두었다.  
 세수는 78, 법랍은 68하夏. 이듬해 3월 28일에 문인  
 신준信俊 등 다섯 사람이 이향異香이 방안에 가득함을  
 감지하고 함을 열어보니 정영精瑩한 사리舍利 두 알이  
 맨 위에 나와 있었다.

다시 이듬해 3월 24일에는 산중대중이 정근하여 사  
 리 12과顆를 얻었으며 그믐달에도 정근을 모시고 15  
 과를 얻고 12월 8일에도 정근을 모셔 8과를 얻어 모  
 두 합하여 37과의 사리를 얻었다. 그 가운데 사리 30  
 과는 문인과 대중들이 받들고 다니면서 인연 따라 공  
 양하고 큰 사리 4과와 빼는 수정 통에 담아서 흰 구리

함에 넣은 후 푸른 명주로 싸서 문인 신찬信贊·혜성慧  
 性·상제尙濟·홍인洪仁·홍연洪延 등 10여 명이 송광사  
 의 북쪽 산등성이에(현재의 청진암淸眞庵 터의 안산案山  
 탑을 세웠다.

선사가 정종대왕定宗大王의 우악優渥하신 도움을  
 받아 송광사를 증흥하게 된 데에는 선사의 사형이신  
 무학왕사無學王師의 소개와 내조의 힘이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사의 법계法系는 다음과 같다.

나옹혜근懶翁慧勤 - 고봉법장高峰法藏 운비雲庇  
 상제尙濟  
 해선海禪  
 신준信俊  
 신찬信贊  
 혜성惠性  
 홍인洪仁  
 홍연洪延  
 홍수洪修  
 신담信淡  
 신주信珠  
 等等

**定慧社**

기획연재 '16국사전' 을 마치고, 다음호 부터는 '송광사의 벽화' 가 연재됩니다. <편집자주>

## 동안거冬安居

연옥鍊玉 | 치문

뉘엿뉘엿 지는 겨울저녁의 햇빛은  
서서히 대웅전 앞마당에 스산한 찬  
기운을 깔아 놓고 전각 처마 밑에  
켜지는 등빛 아래 보이는 풀  
한포기 없는 메마른 바닥에는 빛이  
반사하여 그 쓸쓸함만을  
더해주건만 어두운 부처님 도량 그  
차가운 공기를 뚫고 힘차게 울려  
퍼지는 명고 타종소리에 내가 이  
사바세계에 숨쉬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주위에는 예불을 드리기 위해  
법당으로 향하는 분주한 발걸음이  
보여 지고 그래도 남아 있던 아주  
미세한 햇빛의 자취마저  
지워져버린 산사의 법당에선  
스님들의 예불소리만이 고요한  
산사의 겨울 저녁을 장식한다.  
동안거!

내가 절집에 들어와서 처음 안거를  
보낸 것이 동안거이다. 물론  
그때는 행자의 신분이었다.  
후원에서 스님들의 공양 짓고 상  
차리며 승가의 제일 마지막  
신분으로 안거를 보냈다. 가을  
낙엽이 다 떨어질 무렵의 어느 날  
차가운 내음이 코끝을 지나가면  
겨울이 머지 않았음이 느껴지고 또  
다시 겨울의 황량함을 맛보며 그  
황량함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 갖은  
애를 쓰던 옛날의 나를 생각해  
보며 출가인으로서의 겨울을 준비  
했었다.



새벽 도량석 목탁이 울리고 분주히  
예불 준비하며 밖으로 나설 때  
얼굴을 때리는 매서운 바람은 온  
몸을 추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달달  
떨게 만들었다. 사실 송광사는  
남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습한  
지역이라서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게 느껴진다. 아무런 난방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대웅전 안은 단지  
밖에서 부는 바람을 벽과 문이  
막아줄 뿐 법당 밖의 기온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더군다나  
행자님들 좌복은 작아서 좌복위에  
올라서서 예불을 할 수가 없다.  
법고가 끝날 때까지 부처님 전에  
절하는 동안은 그래도 괜찮다.  
정작 부전스님이 예불집전을  
시작하면서 부터는 이미 발은 양말  
두개 덧양말 하나까지 신고  
나왔어도 뽕뽕 얼어서 어찌 할 줄  
모른다. 양발을 서로 비벼가며  
지~심 귀명례~ 다시  
지~심 귀명례~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예배하다  
지극한 마음으로 얼어 죽는 것도  
목숨 바치는 거니까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어서 학인스님이  
이산혜연선사 발원문을 아주  
여법하고 여유있게 독송하시면  
뭐라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그  
시간 잠시 내 생각은 공양간  
아궁이 속으로 옮겨간다.  
눈 내리는 하얀 겨울 산을  
배경으로 공양간의 굴뚝에  
피어오르는 연기. 딱, 딱딱  
나무타는 소리와 냄새 속에  
창틈으로 보이는 내리는 눈,  
출가했어도 눈만보면 두고 온

무엇이라도 있는 듯 설레는  
 마음이란... 아궁이 속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내 모습과 내  
 마음을 관조하며, 뜨거운 열기에  
 숯검정 문은 이마 위로 땀방울이  
 흐를 때에야 밥익은 냄새가 연기에  
 서려서 아주 구수하게 피어오른다.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훈훈할 수  
 있을까 따뜻한 온돌보다도  
 공양간이 먼저 생각났다.  
 여전히 열어 있는 발가락은 감각이  
 있을 듯 없을 듯 할 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중지  
 이루어지이다...' 드디어 길고긴  
 발원문이 끝났다. 반야심경을  
 마치고 나면 뽕뽕 얼었던 발이  
 전혀 아프지 않고 시리지도 않은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공양  
 준비하러 법당을 빠져 나오던 행자  
 시절의 동안거 기억!  
 이제는 행자가 아닌 강당의  
 학인스님으로서 동안거를 보내고  
 있다. 새벽예불 시간에 좌복 위에  
 올라 갈 수도 있고 발원문도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 하며 예불을  
 드리고 금강경 독경에 108배까지  
 마쳐야 예불이 다 끝난다. 사실  
 행자 때는 금강경 독경하는 모습이  
 참 좋아보였다. 나도 언제쯤 공양  
 준비보다 독경까지 하고 예불을  
 마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독경소리 작다고, 또  
 독경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윗반 스님으로부터 지적도 많이  
 당한다. 가끔 지대방에서 깜박  
 잠이 들어 아까운 시간을 흘려  
 보내고 나면 왠지 모를 미안함이  
 느껴진다.

신도님들이 보시해주는 밥 먹고  
 신도님들이 보시해준 옷 입고, 내  
 힘으론 하나도 벌어먹고, 입고,  
 쓰지도 않으면서 너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출가할 때 가지고 왔던  
 일종식, 장좌불와 같은 것은  
 온데간데 없다. 하지만 비록 치문  
 난자難字와 씨름하고 매일 강의  
 준비하느라 바쁘고 여전히  
 울력하느라 바쁘지만, 그래도  
 행자시절보단 한층 성숙된  
 출가인으로서 동안거를 보내고  
 있다. 발우공양 하면서 하안거  
 때는 먹기 부담스럽던 음식들도  
 양껏 가볍게 먹을 만큼 여유도  
 생기고 수업시간에 그렇게  
 두려웠던 산통도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아지고, 문장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대방에서  
 독서 할 여유도 생겨간다.  
 이제 동안거만 보내면 사집반이다.  
 하지만 사집반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내가 한  
 단계 어딘가로 올라선다는 것은 그  
 만큼 내가 접수하고 책임져야 할  
 무언가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자시절의 동안거와 강원講院  
 치문반의 동안거, 행자시절엔  
 느끼지 못했던 것도 많고 덜  
 고생스럽지만 그렇다고  
 행자시절보다 편안한 것만은 아닌  
 치문반.  
 처음 출가할 때 지니고 왔던  
 마음을 잊지 말고 시주의 은혜에  
 절대 어긋나지  
 않아야겠다. **定慧社**

## 영혜사 스님

혜각慧覺 | 치문

포항에서 버스로 40분쯤 영덕으로  
 가다 보면 조그만 항구도시 강구가  
 나온다. 점심공양을 포항에서 일찍  
 하고, 치문반 도반스님과 함께  
 옛도반을 찾아가는 길이다.  
 포항에 들르는 길에 스님과  
 만나고 싶다는 간단한 전화통화로  
 그 쪽에서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강구 포구와 새로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마을 정류장에서  
 다시 전화로 물어 비탈길을 올라  
 절에 들어섰다. 왠지 황량해  
 보이는 입구에서 도반스님을  
 부르니 한쪽에서 장작을 패던  
 손을 멈추고 우리를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었다.  
 스님은 치문반 생활을 같이 하던  
 도중에 은사스님 몸이 좋지  
 않아서 강원講院 생활을 접고  
 강구로 와서 혼자 계시는 스님  
 시봉과 절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 보다 활기찼으며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뿌듯함과  
 대견함을 느끼게 했다.  
 계戒를 받고 스님이 된 지 얼마  
 안되어 대중과 떨어져 혼자  
 생활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초발심을 잃어버린 나태함과 세속  
 습에 떨어져 스님의 위기가  
 보이지 않는 등 본의 아니게

자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님은 이러한 나의 걱정을 무색하게 했으며 오히려 '대중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스님은 어떠합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 같아 내 뒤를 돌아보게 했다. 주지스님께 삼배를 드리고 차 공양을 받았다. 의례 은사스님은 누구시며 본사는 어디며 이런 등등의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를 앞에 앉혀놓고 차를 따라 주시며 아무 말씀 없이 차만 드신다. 예상치 못한 경우라 자못 긴장 속에서 몸가짐을 다시 추스르고 차를 마시는데 두 잔을 그렇게 드시더니 그냥 자리를 비워주신다. 긴장은 풀리고 도반스님과의 즐거운 차담을 나누었다.

내가 이렇게 영혜사 스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어른 스님과의 근엄한 자리에 익숙하지 못한 어색함에서가 아니라, 차 마시는 그 짧은 시간동안의 침묵. 세속의 인사에서 볼 수 없는 스님들 간의 인사는 이런 침묵 속에서도 이루어 진다는 감흥에서다. 갑자기 찾아간 객승에게 맞지 않는 융숭한 대접과 10월 중순의 쌀쌀한 날씨 속에서 군불을 지피지 않고 생활하는 검소함의 교훈도 보여주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도반스님의 모습 속에서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수행자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定慧社**

## 의왕이 되거라

혜산慧山 | 사미

제 이야기는 마지막 행자생활을 보냈던 불일암에서 시작됩니다. 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7월말 저의 노스님이신 법정 스님께서서는 강원도에서의 장마를 피하기 위하여 송광사 불일암에 일주일간 머무셨습니다. 작년 가을 처음 길상사에서 인사를 드렸을 때 호랑이 같은 눈매와 70이 넘은 고령이심에도 푸른 대나무처럼 꼳꼳하신 모습에 무척이나 긴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노스님과 함께 하는 동안 선물도 사주시고 모기에 물리자 약도 가져다주시고 제가 한 요리에 대해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겠다며 격려해 주시는 등 자상하신 모습에 처음의 긴장감은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목요일이던가? 모처럼 비가 개고 하늘이 무척 맑아 별빛이 어둠보다 더 하늘을 짝 채운 것 같던 날 밤. 정원의 평상에서 저의 사숙이자 현재 불일암 암주를 맡고 계신 덕현스님과 함께한 자리에서 노스님께선 저에게 앞으로 중으로써 가져야 할 마음자세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의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저의 속가 부친께서는 제가 의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180도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서는 모든 중생들이 다 마음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세간의 어떤 의사보다도 더욱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열심히 수행해서 꼭 의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를 받고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을 실행치 못한 것 같아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마음병이란 것은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이 병은 다른 병과는 달라서 스스로가 병을 만들어 환자가 되었고 또한 스스로 의사가 되어서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절대로 불치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분의 일생이 곧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마음병을 완치하고 49년간 수많은 중생들을 치료하셨고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가르침은 많은 이에게 완치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이들이 마음병을 치료하고 더 이상의 마음병을 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조금이나마 그 일에 도움이 되기를, 그래서 지난 여름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노스님께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定慧社**

# 수집가

능인能忍 | 사집

난 수집가다. 무엇을 수집하려고 하면 책을 수집한다. 오늘도 서점에 들렀다. 3권을 샀다. 동안거 들어와선 워낙 책을 많이 사서(물론 우리 수준에서) 돈이 떨어진 관계로 외상으로 사왔다. 내일 모래 월 보시금 나오면 갚아야 할 것이다. 요즘 추세로 보면 하루에 평균 한 권 정도는 사는 것 같다. 강원생활만 2년이 되가는 지금 우리 은사스님 절에 가면 나의 짐 가운데 대부분이 책인데 과일박스로 일곱 박스 정도 된다. 권수로 백오십 권. 금액으로 삼백만원 정도인데, 작년 치문반 때 서점에 가는 것이 금지되었던 관계로 대부분 방학이나 올해 구입한 책이다. 이대로 간다면 대교반 졸업쯤에는 약 오백 권 정도에 천만 원쯤 되지 않을까 싶다. 혹시 돈이 없어서 못사지 않을까 싶지만 이건 비밀인데 그걸 대비해서 적금을 들어놨다. 이번에 적금 타면 별렀던 불교사전 살거다. 한 이백만원 하니깐. 도반들은 이런 나를 보고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한다 하기도 하고 피해의식에 의한 편집광적 성향이라고 하기도 한다. 물론 일견 일리가 있다. 되돌아보면 절에 들어온 지 십여 년이 넘었지만 말사에서는 인연이

없어서 인지 산속에서 어른스님 그늘에서만 오래 살아서 책을 못 보았다. 책 좀 볼라치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서 볼 수가 없었다. 내가 로버트 태권브이도 아니고 어떻게 낮에 밭일 등을 하고 밤에 잠도 안자고 책을 보겠는가? 그러한 일이 오늘날 나의 이런 습성의 밑바탕이 되기도 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책을 사고 나면 그 든든함이 참 달콤하다. 그 많은 책을 교과과목 예습·복습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 읽겠는가. 하지만 어차피 절 집에서 살거니깐 사 놓으면 언젠가는 읽을 거라 생각한다. 또 읽지 않는다 해도 나의 지적 궁금함이나 수행에 관한 지식을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든든함이 참 좋은 것이다. 다른 이유는 난 선지식의 복이 좀 없는 것 같다. 화두일념 수행이나 염불정진등의 수행안내를 곁에서 지시받을 인연이 없는 것이다. 전부터 이부분의 갈등 때문에 송광사 강원엔 큰 맘먹고 왔는데 부족함은 여전하다. 하여튼 책을 통할 길 밖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외에도 책을 사놓으면 어쩔 수 없이 읽여지는 경우도 있고 책을 사고 싶은 맘이 나면 돈이 생기는 것도 책을 살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종일수타보終日數他寶에 자무반전분自無半錢分' 이라지만 내 입장에서 땡전 한 푼 없는 놈이

남의 돈이라도 세면서 돈버는 방법을 배워야지 별 수 있는가? 나는 불교학자가 되고 싶은 맘은 없다. 더욱이 불교서점을 경영할 생각도 없다. 이 많은 책을 사서 뭐 할 것인가 도반들은 궁금하겠지만 나의 한 가지 바람은 강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을 떠나 어느 처소에 있더라도 지금 이 책들 속에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구도정진을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나의 선지식을 책 속에서 구하고 싶을 뿐이다. 定慧社





# 참회합니다

인석仁石 | 치문

인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회합니다. 저녁 선 체조 시간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앞에 나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자세와 동작, 포즈, 언행으로 대중 스님들을 우롱한 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매일 저녁 7시 40분 부터 8시까지 몸을 푸는 선 체조시간. 참선하는데 필요한 몸 풀기 동작을 하면서 하루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유지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동안거 첫 간경이 있던 날 저녁 선 체조. 저는 불일이 급해 해우소에 갔다가 와서 큰방 문을 여는 순간 사집반장 스님 왈 “인석스님! 빨리 앞으로!” 하면서 저를 앞으로 끌고 가시더니 “지금부터 선 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하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선 체조에 대해서 뭘 알아야 하지요. 근데 옆에 계시던 찰중스님께서 더욱 맛장구를 치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시간에는 우선적으로 선체조 20분 참선 15분을 꼭 하겠다”는 것입니다. 체조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 해보고 한 적이 없는 저를 앞에 세워놓고 하라 하시니... ‘저의 몸을 보십시오. 키는 작고 몸은 뚱뚱한 편이고 다리와 팔은 살이 통통합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치문반만 아니면 못하겠다고 생떼를 써서라도 안 할 것인데 어떡합니까. 자기 상을 내지 않고 소임자 스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불쌍한 치문반의 운명인데 암 해야 되죠. 먼저 무엇부터 할까 생각하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체조와 비슷하게 연관되는 것들이 한꺼번에 머리에 스쳐지나 가는데 떠오르는 것은 없고, 정말 난감 했습니다. 어쩍니까! 그래도 해야죠. 좌선은 주로 앉아서 하니까 골반과 허리 어깨 위주로 발목부터 머리 위로 올라가면서 하면 되겠지. 이 한 가지 원칙만 세워놓고 하다가 잘못되면 뭐 소임자 스님이 알아서 뒤처리는 떠맡아 주시겠지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침을 꿀딱 삼키면서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시작 하겠습니다.” 한 마디를 어렵게 던지면서 첫날 식은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도 그 날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반응도 괜찮은 것 같고... 둘째 셋째 날부터는 어제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을 비틀고 다리를 꼬고 하는 동작 하나하나 대중 스님네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 속에서 눈 딱 감고 그럴싸한 변명으로 “이 자세는 어디에 좋고 어떨 때 좋습니다.” 하는 식으로 억지로 겨우 넘어 갔습니다. 그 후 며칠 째 되는 날인데도 앞에 했던 것들은 생각이 가물가물하고 저도 처음해보는 새로운 자세들을 취하면서 그럴싸한 부연설명으로

대중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뒤로하고 막 밀어붙였습니다. 결국에는 찰중 스님께서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말투로 이상한 자세와 어려운 자세는 자제하고 쉽고 평이한 것을 하면 어떻겠냐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최대의 위기 상황! “예” 하고는 그 이전에 했던 것 위주로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낮설고 처음 하는 자세는 자제하면서 쉽고 평이한 자세만 하려고 무지 노력 했습니다. 지대방에 가서 도반 스님들께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서 나도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 대중 스님들께 들통 나면 큰일이다 하면서 조언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대중스님들은 어느 정도 사태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어서 그런지 잡음만 조금 있고 조용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선 체조 시간만 기다려진다는 도반스님의 우스개 농담이 있어서 저에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줍니다. 어설픈 선체조가 대중스님들이 하루하루의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유지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있다면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선 체조 소임을 맡기신 사집반장스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믿고 따라 해준 대중스님들을 우롱한 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定慧社**

황대선원 조실  
활산성수活山性壽 큰스님



우리가 스님을 뵈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해동선원' 이었다.  
산청 IC에서 왕산 자락을 따라 한 5분쯤 갔을까...  
폐교를 개조해서 만든 건물에 달린  
해동선원 이란 글자가 큼지막이 보인다.  
진눈개비가 날리는 조금 쌀쌀한 날씨.  
큰스님께서서는 우리가 도착한 소식을 아시고  
이미 현관 앞에 마중 나와 계셨다.  
그 옛날 딱딱한 학교건물에  
큰스님의 범 향기가 가득 차니  
이곳이 바로 적적하고 요요한 보배의 궁전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불 안 빠지고 좌선시간 안 빠지고 내 나름대로 시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내 목적이라.

효봉스님 문하에서 공부하실 때 기억에 남으시는 일화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효봉스님 하고는 내가 인연이 참 많아. 지난 효봉스님 재에 별안간 나보고 추모사를 하라고 해서 “효봉스님 기일에 이렇게 사부대중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효봉스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번 헤아려 본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시오” 하니 아무도 안 들어…….

어떤 어른이 어떤 길을 걸어서 효봉이 됐는지 그 자취를 되새겨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효봉스님은 출가 전에 판사를 십몇 년이나 했는데 어느 날 한 죄인의 서류를 보니까 경찰서 다섯 개를 불 지르고 경찰서장 다섯을 때려죽이고 잡혀 들어 왔는데 효봉스님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라. 문서를 보면 이건 사형감이야. 그런데 재판날 죄인이 묶여 들어오는 걸 보니 어릴 때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던 친구인거라. 같이 독립하자고 하던 애국자 친구가 사형수로 잡혀 온 걸 보고 간이 떨어져버린 거야.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는 거라. 애국자 친구에게 사형을 내리면 우리나라의 역적이 되고, 사형을 안내리면 위법이 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 그래서 효봉스님은 화장실 좀 다녀와서 판결



해동선원 법당에 모셔진 원효대사

하겠다고 하고 화장실 구멍을 뚫고 똥 속을 헤엄쳐 범정을 빠져 나와 산속에서 3년 동안 신선도를 구하러 돌아다니셨어.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고파서 들어갔는데, 임석두 조실이 관상을 보니 보통 놈이 아닌 거라. 그래서 저녁공양 후 불러서 “뭘 하러 다니는 사람이요?” 물으니 “신선도를 구하러 다닙니다.” “찾았소?” “못 찾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불생불멸의 도가 있다.” “그것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거기서 3년을 그렇게 앉은 거라. 조실이 효봉스님을 3년간 시봉을 했는데, 어느 날 만공스님이 와서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이렇게 징역 살리기 아깝다” 하면서 집에 불을 지르고 꺼내줬는데, 3년 시봉한 조실 은혜보다 불 질러 꺼내준 그 은혜를 잊어 본적이 없다 하시더라.

그 다음부터는 선방에 살았는데 그때 44살 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은 10년씩 20년씩 선방에 다녔지만 효봉스님은 늦게 출가 하셨으니 다른 사람보다 바쁜 거라. 바쁘니까 다른 사람이 경행 돌면 좌복을 궁둥이로 끌어다가 복판에 가서 앉아 있고 다시 죽비 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궁둥이가 썩어가지고 좌복이 축축하게 젖어도 궁둥이 썩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었으니 절구통 수좌가 그냥 절구통 수좌가 된 게 아니야.

효봉스님이 그렇게 하니 ‘판사 하던 사람이 중이 되어 가지고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왕비가 가사장삼 만들 비단을 보내왔는데, 그걸 파니까 중 셋이 10년 먹을 양식이 된 거라. 진짜 공부 잘할 사람을 모아가지고 작대기 하나에 하나씩 거머쥐고 서로가 졸면 때리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나중에는 혼자만 남았어. 효봉스님은 3년 동안 10분 절하고 10분 포행 돌고 20분 앉아있고 그렇게 공부하셨는데, 졸아도 20분 밖

에 안 졸겠다는 거라. 그렇게 3년을 하니까 거기서 당신이 공부의 맛을 조금 봤다. “3년을 그리한테서 공부의 힘이 좀 생기더라, 너도 그리해 봐라” 했는데 나는 아직 못 해봤어.

효봉스님이 삼칠일동안 용맹정

사 가면 있다고 해서 범어사로 갔어. 범어사로 가서 “큰스님 나와라. 큰스님 나와라” 소리치니 큰스님이 한 분 어슬렁 어슬렁 나와서 날 보고 “총각, 큰 중은 왜 찾는고?” “예, 원효대사 같은 스승을 만나고자 1년 동안 전국 절을 헤매고 다

만에 책 세 권을 다 배우니 “49일 만에 세 권을 10만독 외워라” 해서 외워 바치니까, “너는 부처와 인연이 있으니 해인사 총림에 가서 배우거라” 해서 수계가 뭔지도 모르고 가사·장삼·바루와 여비를 챙겨 주길래 가지고 해인사에 공부하러

동산스님이 정말 중중에 중이라. 예불절대 안 빠지고 제일 먼저 나가있고, 조실이라도 꼭 큰방 공양에 참석하고 그 어른 참 본 받을게 많아.

진하면 삼칠일 동안은 등도 안 붙이고 눈도 안 붙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라. 손도 이래 옮겨놓지도 않아. 그냥 효봉이 된 게 아니야.

송광사 강원 스님들은 효봉스님 뉘새라도 한 번 맡고, 정말 효봉스님의 자취를 되짚어 보면 배울게 참 많아. 송광사에 있으면서 효봉스님이 걸어간 그 길을 항상 잊지 말고 노력해 주기를 부탁해.

**스님께서 출가하신 동기와 30년 동안 초심학을 간경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동네에는 학자 어른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효대사의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 그래서 “나도 그런 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원효대사 같은 사람을 만나서 도를 배워야 된다” 하시기에 19살에 집을 나와서 원효대사 같은 스승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다녔어. 1년을 다녀도 도사 있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안 가르쳐 주기에 그러면 “큰스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니까 범어

났으나 만나지 못했고, 전국 산 좋고 물 좋은 곳은 중들이 다 차지하고 놀고 먹고 있으니 이러다간 얼마 안가 우리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 같소. 이점에 대해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전국 절을 다 불지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 보통의 경우 “이놈!” 하여 야단을 칠 것인데 가타부타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내원사’를 소개시켜 주셨어.

내원사에 들어가 풀만 뜯어먹고 일년 있으니까 일년 만에 “여보게, 자네 뭐 하러 왔느냐? 오늘부터 글 좀 배워봐라.” 남의 집에 1년 살았으니 주인 말을 무시할 수 없잖아. 그래서 글 배울 생각은 손톱 만큼도 없지만은 사정하는데 무시할 수가 없어서 “석자만 배우겠습니다” 했더니 초심을 가져와서 글자를 가르쳐 주는데 한나절 앉아서 초심을 다 배웠어. 내가 잘 알아먹으니까 “한나절 초심 다 배웠으니 한나절 외워 바쳐라.” 이튿날 또 불러서 나가니 “하나만 더 배우자”, “자경문 이거 하나마저 배우자” 해서 3일

간 거야.

**지금까지 수행을 해오시면서 스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선지식이 있으시다면...**

영향을 많이 준 선지식 제1호는 효봉스님이고, 그다음이 동산스님이야. 동산스님은 시자에게 뭘 가져오라 해서 빨리 안 가져오면 법상에 앉아서 시자 볼때기를 막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하고 때리고 화를 내놓고도 법상에 앉아서 계송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송을 하는데... 동산스님은 그게 참 특이해. 암만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는 중은 좋아하고 가는 중은 싫어해. 갈 때는 도망가야 되지 스님 보는 데서는 못가. 대중을 그만큼 잘 외호하셨어.

동산스님도 보통 어른이 아니야. 왜정시대 의학 전문학교 다니다가 용성스님한테 따지러 갔다 한마디에 저가지고, 7일 동안 책 보따리 쌓아놓고 용성스님 옆에서 공부하다가 상기병이 나가지고 평생 상기병을 앓았어. 그래도 동산스님이 정말 중중에 중이라. 예불절대 안

빠지고 제일 먼저 나가있고, 조실이라도 꼭 큰방 공양에 참석하고 그 어른 참 본받을 게 많아. 법상에 앉아 법문을 할 때는 대중이 살살 녹게 법문 잘하고 욕을 할 때는 또 개망나니처럼 욕을 하고 동산스님은 그런 성격이라.

이 좋구려” 하니까 그 노장이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요즘 선방에 토끼 새끼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자 새끼도 있었구나” 하며 끌어안고 춤을 한바탕 추었어.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하고 내려와 버렸는데, 20년 후에 내가 범어사 주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고, 효봉스님 법문도 전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고, 전부가 내 보다 낫고... 거기서 내가 하심(下心)이란 것을 3년 만에 확실히 배워가지고 나온 거라.

또 내가 30대 때에 양산 미타암

학인들한테 부탁할거는 제목부터 먼저 알고 책장 넘기라고 해라. 또 선객이 되려거든 참(參)자가 무슨 자인지 선(禪)자가 무슨 자인지, 이마를 닦는지 궁둥이를 닦는지 알고 닦아야지 모르고 닦는 건 전부 죽은 중이라고 한마디 해주라고. 전부 목적이 확실히 있어야 해. 모르고 가는 거는 헛걸음 아니야?

또, 24살 때 해인사 총림을 나와서 부산에 기차 타고 내려가다가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절이 어디 있느냐 물어 절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법당에서 누가 법상에 앉아 법문을 하는데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냥 올라 하다가 마당에 서서 다 듣고, 법당에서 내려와 자기 방에 들어가 길래 따라 들어가서, “절 받으시오!” 하니 가사도 안 벗고 합장하고 절을 받더라. 딱 마주서서 “금새 하신 것이 법문을 했소, 설법을 했소?” 물으니까 나를 한참 훑어보더니만은 “법문했지.” “자기걸로 했소, 남의 걸로 했소?” 하니까 또 나를 한참 훑어 보더니만은 “내 것도 무진장인데 남의 것 할 일 뭐 있소.” 말이 됐거든.

자기는 나를 한참 아래로 생각해 훑어보고 말을 하는데, 나는 너무 기빠 즉흥적으로 등을 툭툭 세 번 두드려 주면서 “뚝배기 보다 장맛

로 가니까 그 노장이 왔는데 그게 설봉스님 이라. 젊었을 땐 내가 까불기도 많이 까불었지만도 어른들하고 “뚝배기 보다 장맛이 좋구려!” 이렇게 해도 뜻이 통하니까 여여하잖아.

#### 수행하시면서 장애가 왔을 적에는 어떻게 극복 하셨는지요?

내가 제일 잘났다하고 이틀사흘 밥을 안 먹어도 의기양양해서 배도 안고플 때라. 어느 날 촌골목을 지나가는데 애들이 장삼을 입고 품 잡고 가는 나를 보고 “저, 중봐라!” 여러 놈이 불알 내놓고 서서 “저, 중봐라! 중봐라!” 하는데 내가 참한 방망이 맞고, 천은사에 들어가서 3년을 풀먹고 나왔어. 그 애들이 “중봐라!” 하는 데서 정말 많이 배웠어.

공부 하는 거 그냥 뭔가 받쳐야 돼. 그 때 3년을 풀먹고 나오니, 동산스님이 법문 해주는 것도 전부

밑에 토굴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데,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서 시간 뺏기는 게 아까워서 내원사 뒤 비룡암 터에 누가 토굴을 지어 살다가 비워놓고 가버리고 없다 해서 ‘애라! 나도 거기 가서 실컷 공부 좀 해야겠다’ 하고 쌀 두 되하고 간장 한 병을 지고 새벽에 도망을 갔어. 이슬에 옷이 다 젖어가지고, 불때 놓고 젖은 옷은 벗어 방바닥에 깔아놓고 주장자를 툭 걸치고 좌복위에 ‘내 살 곳에 왔다’ 하고 두 시간을 앉아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젖은 옷을 도로 꺼 입고 앉아 있으니, 어떤 여자가 문 앞에 툭하고 서서 “왜 이 깊은 산중에 혼자 와서 있습니까?” 묻는 거라. “조용한데서 공부 좀 하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 여자가 그 말에 답하기를 “물소리, 새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 할 말이 없잖아. 그냥 멍해서 그대로 한 방망이 맞고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앉아 있

으니까, 가버리고 없어. 3시간 만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 조용한 곳을 찾는다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냐를 알겠더라. 덜 마른 옷을 그대로 입고 갔던 길을 도로 넘어와서 그 후로는 밥을 먹던지 똥을 누던지 사람하고 얘기

책장 넘겨야 돼. 초발심자경문 제목도 분명히 알고 넘겨야 되고, 금강경이면 금강경. 제목부터 확실히 이해와 납득이 갈 때 책장을 넘겨야 돼. 제목도 모르고 책장을 넘기면 뭐하느냐 이말이라.

학인들한테 부탁할거는 제목부

대중은 한 놈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자기 불알 갖고 논 얘기만 하는 거라. 누가 그런 얘기 하면 가서 한대 때려주고 법상에서 끌어 내려놓고 올라와서 자기 법문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그게 수좌라. 너희들도 불알 값 좀 하고 살아라.

너희들이 이런 책자를 만들어 내고 하면 좀 백다구 있는 중이 보고 찾아와서 나를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그런 사자새끼 기르는 게 필생의 원력이라.

하던지 '내 공부 챙기면 된다' 이거라. 그게 10년 가. 어린애한테 맞은 것이 3년 갔고, 그 여자한테 맞은 게 10년 가더라. 그 여자가 여자가 아니라 문수보살이라.

**요즘 자비관, 수식관, 위빠사나 등 다양한 수행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거 다 소용없어. 숨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죽는데, 간화선이니 뭐 호흡선이니 뭐 수식관이니... 조주가 무無자 하는 것도 그때 그 중한테 필요한 말이야. 화두 쥐고 화두 하라 하는 거는 아니야. 무자가 도가 아니라 무자 안에 진여를 맛보는 그게 도지. 또 지월지교指月之教라 했잖아.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쳐 줘서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화두에 걸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저희 같은 초학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중생화를 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초발심자경문 10만독 읽었다고 했잖아? 제목부터 똑똑히 알고

터 먼저 알고 책장 넘기라고 해라. 또 선객이 되려거든 참參자가 무슨 자인지 선禪자가 무슨 자인지, 이마를 닦는지 궁둥이를 닦는지 알고 닦아야지 모르고 닦는 건 전부 죽은 중이라고 한마디 해주라고. 전부 목적이 확실히 있어야 해. 모르고 가는 거는 헛걸음 아니야. 알고 가야 돼. 전부가 다 이치는 그러한 것 같지만도 사事에 가서는 전부 막혀 있는 거라. 초지도 못 깨달았으면서 도道 알았다 하는 놈, 천이백 가지거든.

초지, 이지... 팔지, 구지, 십지, 등각, 묘각, 대각을 해야 성불을 하잖아. 근데 초지가 뭔지 이지가 뭔지도 모르고 화두만 쥐고 앉았거든. 화두 쥐고 앉아 화두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그 안에 알맹이를 알아야 돼, 그걸 견성이라 하는 거야. 지금 쇠덩어리 타고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뜻도 모르면서 법상에 앉아, 괜히 부처 말, 조사들 말 꾸어다가 밑에 적어 놓고 "아무 조사는 이렇게 말하고, 아무 선사는 이렇게 말하고,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

**요즘 큰스님들께서 많이 열반에 드시고 계시거든요? 월하스님도 그러시고요, 또 청화스님도 그러시고 또 얼마 전에 서옹스님도 그러시고, 이걸 보시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열반하는 건 자기 탓이지 뭐, 자기 업대로 살다 가는데, 내가 그 분들 평론해서는 안되고, 나는 지금까지 큰스님이라 해도 꽃 한 송이 갖다 올려놓은 적이 없어. 그 대신 만장은 한 자 써줬어. 요번에 서옹스님 식당에 가니깐 한마디 써 달라해서 내가 뭐라고 썼냐 하면 '수거풍래水去風來하라.' 물 따라 갔다가 바람 따라 오시오. 막 써주고 나오는데 만장 하나 써달라고 해서 만장에다가 '시방+方이 무비선無非禪이라.' 이렇게 한 장 써주고 왔어.

예전에 송광사 방장 일각스님을 닷새 전에 만나 효봉스님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닷새 만에 부고가 왔는거라. 그 때도 만장하나 쓰라 해서 '시수음視水音하라.' '물소리를 보라' 라고 써줬어. 아주 알찬 법문 아니야!

밥솥도 한시간만에 쌀로 밥을 만들어 내고, 대지는 만물을 일년 열두 달 다 익혀내고, 세존은 열두 해만에 중생을 부처로 만들어 내놨는데 우리는 뭐야. 뱀새가 죽어도 짹하고 죽어야 되잖아. 뭐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라.

**스님의 원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절은 묵은 땅이고, 중은 모두 병들어 있다…….’ 중이 물이 잘못 들어서 그래. 나는 새 땅에 새 나무를 키우고 싶다. 너희들이 이런 책자를 만들어 내고 하면 좀 백다구 있는 중이 보고 찾아 와서 나를 팔아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그런 사자새끼 기르는 게 필생의 원력이라. 혼자서는 독불장군 노릇 못하거든. 그래서 사람 기다린다고 이래 앉아 있지…….

중은 뭐 걸림이 없잖아. 전국 중을 다 거머쥐고 흔들 줄도 알고, 정계에 가면 정계에 통하고, 애들한테는 애하고 통하고……. 이런 중이 돼야 하는 거라. 내 도만 가지고 있다고 다는 아니야.

어린애 하고도 호흡이 통해야 돼.

**저희 후학들이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글귀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시작이 반 아니여! 중된 초보자들이 초보때 ‘정말 절에는 뭐 하러 왔느냐?’ 하루 세 번씩 물어서 답이 안나오면 밥 굶어야 돼. 왜 밥 굶느냐. 쌀은 1시간 만에 밥이 되어 익어 나왔는데, 나는 덜 됐거든. 덜된 인간이 익은 밥 먹기 미안해서 밥 손가락 봐야 돼. 밥솥도 한시간만에 쌀로 밥을 만들어 내고, 대지는 만물을 일년 열두 달 다 익혀내고, 세존은 열두 해만에 중생을 부처로 만들어 내놨는데 우리는 뭐야.

뱀새가 죽어도 짹하고 죽어야 되잖아. 뭐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라. 몸뎡이는 물질이고, 생각은 철학이고 정신은 진리라. 몸뎡이만 먹이고 재워 주면서 정신은 있는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위할 줄도 몰라. 몸뎡이는 팔이나 다

리나 떨어져도 사는데 정신은 1초만 나가면 송장이 되는 거라. 중이 됐으면 불알 값이라도 하고 살아야 돼. 불알 값 못하는 중은 상대가 안 돼. 이런 늙은 중도 깡다구 있는 젊은 중이 자꾸 와서 질문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숨어야 되잖아. 그럴 때가 참 좋은 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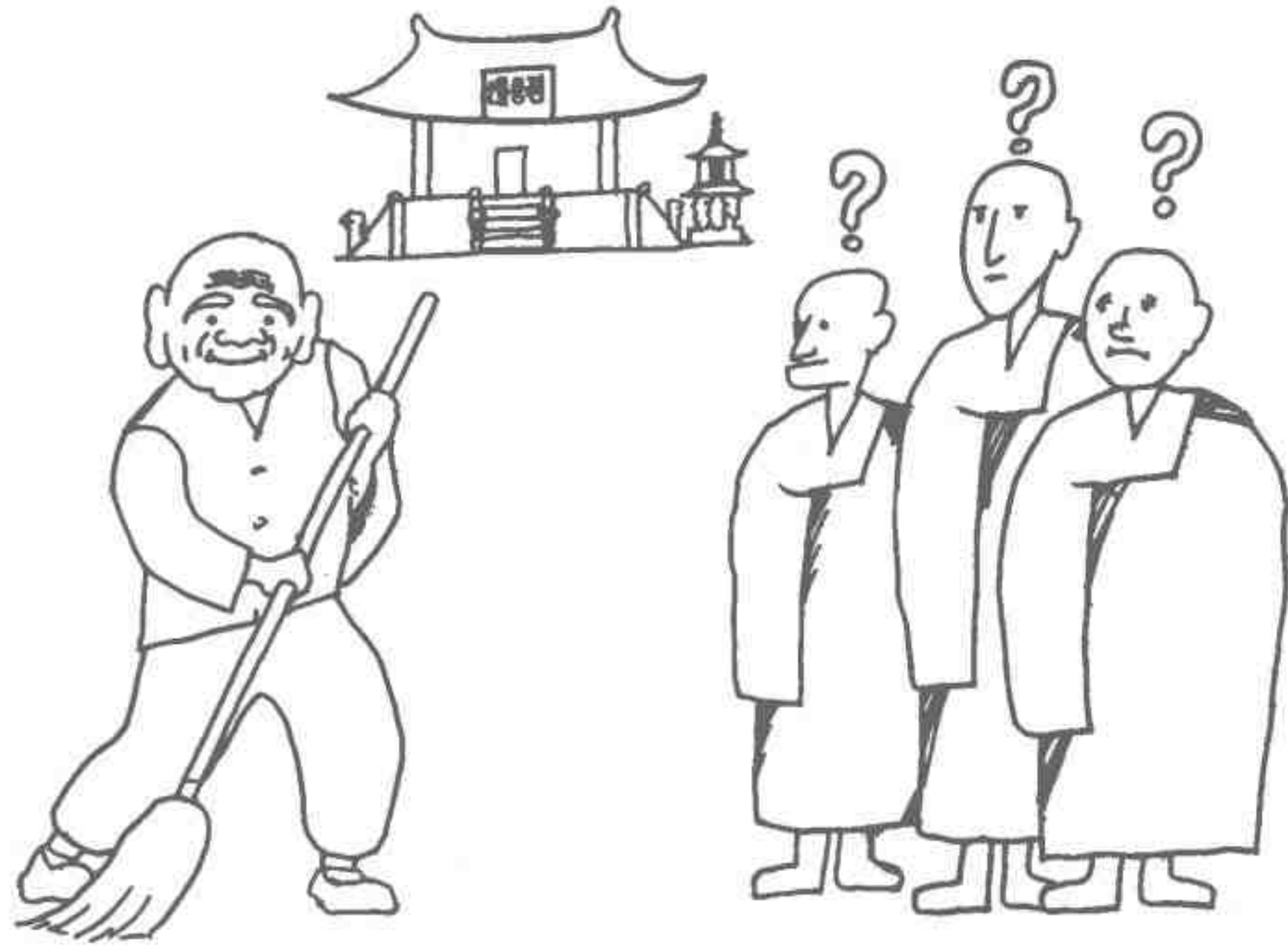
옛날 중들은 전부 은거하잖아, 숨어서 사는 거라. 그리 알고 정말 시작이 반이라는 거, 이 개념을 확실히 인식해주고 이 몸 얻은 거 ‘백천만집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라’ 했잖아. 이 몸 있을 때 뭐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냥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야. 시간 아까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시간 아까운 줄을 모르고 드문드문 남의 걱정이나 하고 사는 게 무슨 중이야. 익은 밥 먹을 자격 있나 없나 하루 한 번씩 검토하고 먹으라 해라. **定慧社**



성수 큰스님은 192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1944년 부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시고, 1946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조계사·범어사·해인사·고운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의 의원이다. 성수스님 인터뷰 동영상 자료는 송광사 홈페이지 <http://www.isonggwangsa.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비질을 하는 이유

글·인효印曉 | 그림·연옥鍊玉



조주스님은 매일 새벽 비질을 하는 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셨다.  
젊은 스님들은 조주스님의 그러한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루는 젊은 객승이 조주스님께 물었다.  
“큰스님도 마당의 먼지를 쓰십니까?”  
여기서 ‘먼지’는 번뇌의 뜻으로서  
존경받는 큰스님에게도 번뇌가 있냐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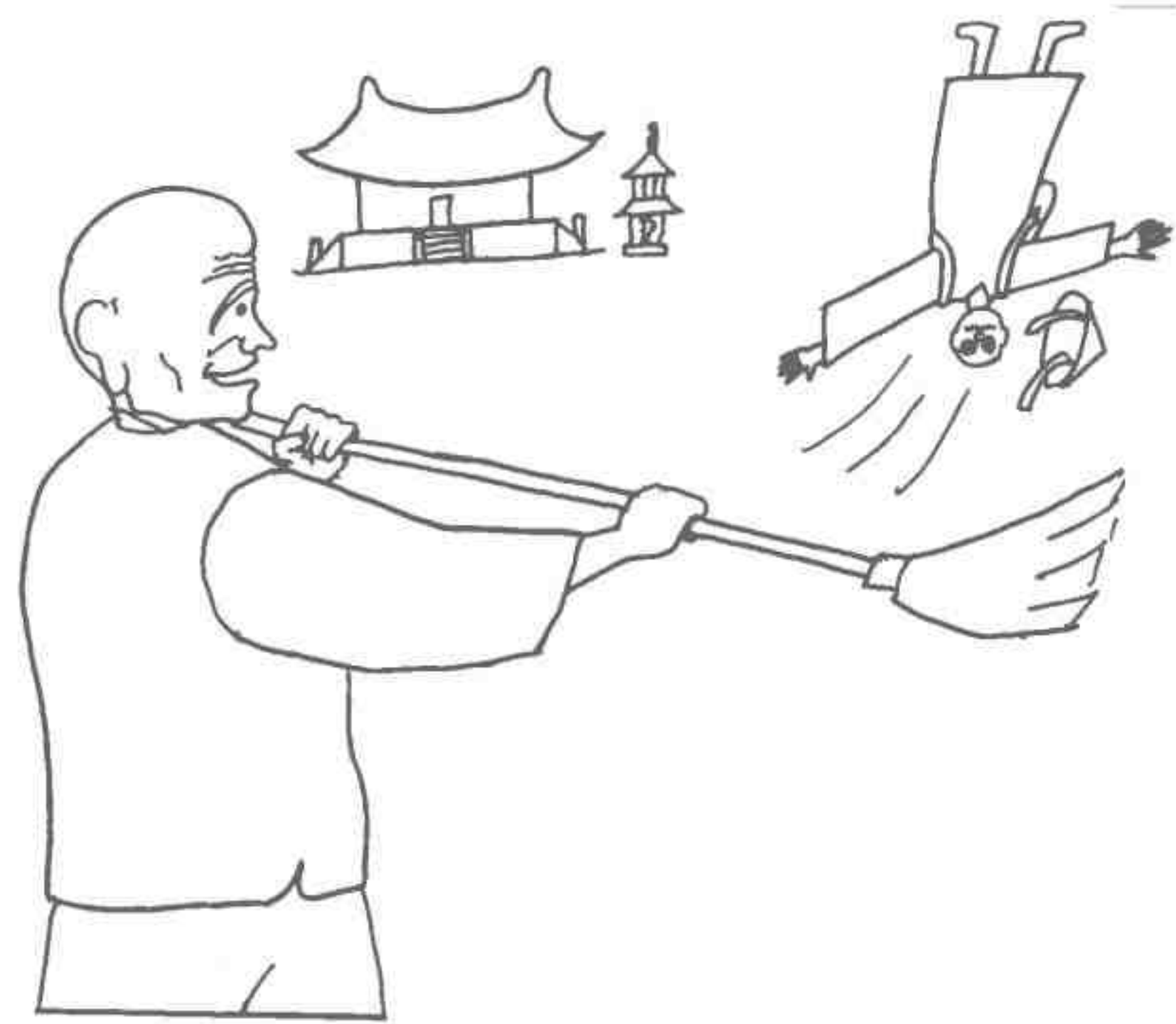
스님이 한마디 하셨다.  
“먼지가 밖에서 왔다.”





객승이 다시 물었다.  
 “본래 청정한 도량에 무슨 먼지가 밖에서  
 오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허허허. 여기에 큰 먼지가 들어와 있네...”  
 한순간에 큰 먼지가 되어버린 객승은  
 조주스님의 빗자루에 아무 말도 못하고  
 쓸려 나갔다.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도  
 먼지와 다름이 없다.

## 음식飲食과 수행修行

보명普明 | 치문

부처님께서서는 하루 일종식을 하셨고 많은 선지식들께서는 일종식 또는 오후불식을 하셨으며, 평생을 생식하고, 단식을 밥 먹듯이 하신 선승禪僧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다.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음식의 중요성을 말씀했다. 출가出家하여 평생을 수행修行하는 것이 오욕五慾을 버리는 것일 것이다.

그 두 번째가 식욕食慾이다. 속된 말로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하는 질문을 속세俗世에서 자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스님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 미욕味慾으로 먹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참아야 하는 고행이 곧 수행의 깊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음식과 수행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소식小食에 관한 책에서 '복질분법'이라는 글을 본적이 있다. 위장의 70%만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나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단식도 마찬가지다. 보통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몇 십 년 동안 하루 3번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고 다른 장기들이 영양분을 섭취 분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장으로 내려 보내고 하는 일을 한번도 쉬지 않고 해왔을 것이다.

기계도 오래 사용하면 정비하여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거늘, 사람 몸도 정기적으로 단식을 하여 장기들을 쉬게 하고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들은 정화시켜 주어야 건강한 오랜 삶을 기약할 수도 있고, 맑고 청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몸과 맑고 청정한 정신은 구도자求道者들의 수행의 바탕이 되는 힘일 것이다.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다.

현대병의 원인이 70%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우리 강원講院 내에도 몸이 아픈 도반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몸은 조금 아파도 마음이 건강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단식은 어렵겠지만 꾸준한 소식小食으로 몸도 정신도 건강해지고 수행력修行力도 깊어지기를 발원한다. **定慧社**

#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본공本空 | 사교

예전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한 성직자가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면서 서구 열강들의 탐에 희생되는 원주민들과 함께 겪는 신앙과 숭고한 희생 앞에 감동 받지 않았을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종교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출가하고 몇 해가 지난 지금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어딘지 모를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 단순히 이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고 신심도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혼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의 나의 문제를 짚어보며 재발심 할 수 있는 반성의 기회로 삼는다면 앞으로의 신행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중생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다. “남보다 빨리 성불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출가의 길을 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들은 적이 있다. 출가자는 나의 업장뿐 아니라 다른 이의 업장과 고통을 떠맡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작은 성불은 늦을 지라도 큰 서원과 발원의 힘으로 결국에는 궁극의 열반에 도달하는 보살도를 걷게 된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다만 어떤 방법으로 돕는가 하는 방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출가자라면 성불에의 목표와 원력으로써 수행의 이로움과 굳은 믿음의 길로 중생을 도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최고의 의무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생활 속에선 언제나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중생을 성불의 길로 안내하기 보다는 점점 현실에 동화되어 혼자 설 수 없는 나약하고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출가자의 큰 목표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명제를 짚어지기 위해서라도 상구보리의 개인 수행은 기본 전제가 아닐 수 없으며 굳이 강조할 필요 없는 필요조건일 것이다. 하지만 출가자로서가 아니라 수행자의 자세마저도 갖추지 못한 현재의 상황은 그래서 더더욱 자괴감으로 다가온다.

이 영화에서 감동 받았던 것은 바로 신앙과 나와 현실이 온전히 하나 되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목표가 크건 작건 간에 현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지 못하고 모순을 들어내고 있다면 이 또한 큰 잘못일 것이다. 처음 출가했을 때의 초발심, 신으로의 온전한 귀의, 가슴으로부터 올라오는 굳은 믿음과 신심, 발원을 잇을 수 있는 출가자 또한 없을 것이다. 그것이 다만 형상의 부처님일지라도 머리 깎은 행자의 모습엔 그저 잠시나마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롭고 감사할 뿐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불교라고 맹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한다면 이 또한 또 다른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으로 부터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모르고 형식에 집착한다면 그 또한 긍정해야 할 것이다. 긍정을 통한 절대긍정으로의 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현재 조건과 동떨어진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긍정이란 이 모두가 내용과 형식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임을 긍정하는 것이며 부정이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정된 관념에 흐르는 것이다.

초발심은 작은 시작이지만 큰 깨달음이며 수용이며 이해이고 배움이며 가르침이며 겸손이며 확신일 것이다. 그 안에 이미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길이 있을 것이다. 가장 단순한 삶이 가장 이익된 삶이라고 들었다. 이 먼 단순한 삶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초발심 행자로 되돌아 가라”고 많은 선지식들이 말한다. 그분들에게도 과연 깨달음이란 마음이 있을까. 아니다, 그들은 바로 초발심 행자이며 이러한 초발심 행자가 바로 나의 스승이다. 하루하루를 참회하며 보내는 그때가 바로 잃었던 상구보리의 수행이었음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무게가 이렇게도 무거운 것일까! 이제 다시금 출가자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참회하고 싶다.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불보살님과 스승님께 발원하오니 한때 언제라도 겸손하며 참회하는 초발심 행자로서 살게 하소서! 定慧社

# 상생죽필문想生竹筆文

도해度海 | 대교

다른 강원에서 살다가 송광사 강원로 와서 처음엔 여러 가지로 힘들거나 어려운 점들이 많았으나 하나하나 겪으면서 지내온 생활들이 어느덧 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았지만 결코 짧지 않았던…….

지금에 와서야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강원에서 나와 오갈 데 없는 저에게 자그마한 좌복 하나 크기의 공간을 배려해주어 법당에서나 큰방에서나 내가 서고 앉고 눕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음을 항상 감사했던 송광사.

치문반 지전知殿소임이였을 땐가!

저는 상강례 준비 목탁을 울리는 소임 이였습니다. 7시 정각에 목탁을 세 번 내려야 하는데 잠깐의 졸음으로 그만 시간을 놓쳐 버렸습니다.

우짜지! 하다 시계를 보니 7시를 넘어 초침이 무려 10초나 지나고 있었죠. ‘이거 참회구나!’ 싶었는데 순간 생각이 든 게 ‘아날로그라 한 바퀴 더 돌아도 모르겠다! 하면서 나머지 50초를 기다려서 여유 있게 목탁을 내렸죠.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그 뒤 어느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했죠. 다른 강원 큰 방에는 디지털의 전자시계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송광사의 시계도 디지털 이였다라면 아마 참회를 받았을 겁니다. 누군가 송광사 강원과 다른 강원과의 차이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다른 강원은 큰방 시계가 디지털이지만 송광사 강원은 큰방 시계는 아날로그’ 라고요.

그 ‘한 바퀴의 여유’ 로 저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 준 송광사.

결제 전 송광사로 들어가기 위해 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멀리서 ‘어이!’ 하고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 웬걸 주지스님과 유나스님께서 바랑을 메시고 ‘어디가?’ 하고 물으신다. ‘들어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교통비로 조금 챙겨 주신다. 그리고 강의 시간 때 주지스님께

“상좌들도 많고 상좌들을 운전수로 해서 자가용을 타시면 되는데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까?” 하고 짓궂게 질문을 하니 허허허 웃으시면서

“고놈들은 자가용 휘발유까지 빼서 팔아 목을 놔들인데 내가 어떻게 믿고 자가용을 타겠노?” 하며 웃으신다. 왠지 어렵게만 느껴왔던 그러한 소임자 스님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유 없이 그냥 좋게만 보였던 송광사.

사중의 모든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범망경 포살 때였던가?

증명 법사로 올라온 당신의 상좌에게 공경히 삼배를 올리는 은사스님의 모습으로

사시 공양 전이었던가?

몇 년 사이에 법랍이 되어 공양 좌차가 불쑥 어간 가까이로 당겨진 스님을 보면서 회주스님께서

“세월이 흐르니 이제 아무개 스님도 어간 가까이서 공양을 하는구나!” 하고 활구(?)를 던진다. 이에 어간이라

는 소리에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으쓱해진 그 스님에게 바로 즉시  
“그건 말이야! 열반당이 가까웠단 소리야!”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사구(?)로서 일침을 내리는 노스님의 모습으로

외운 것을 토해내기 바빠서 재고축, 삼고축을 암기한 대로 나오는 대로 축원을 하는 우리들보다 부처님께서  
진짜 앞에 계신 것처럼 그 발 앞에서 간절하고 절실하게 저두를 90도로 하면서까지 축원을 올리시는 어른 스님  
들 모습으로

이름이 있는 부도탑은 그 반연들이 와서 풀도 뽑고 하지만 이름 없는 부도탑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꼭 무  
명씨 부도탑만 골라서 풀을 뽑았던 도반들 모습으로.

비구계를 받고서도 강원에 입방하여 굶은 일은 도맡아서 열심히 생활해 주시는 치문반 비구스님의 모습으로...

우리네 공부는 버리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게 하고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송광사는 저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다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며칠 후면 바람을 메고 떠납니다. 그 가는 길에 마음이 닿는 곳이 있습니다.

송광사의 흙길을 걸어오다 보면 낙하담이라는 연못이 있고, 그 옆에 다송원이라는 아담한 찻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찻집 바로 앞에 절에서는 일찌감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롭게 보이지만 하지만 아주 크고 당당하게  
서 있는 비가 하나 있는데 그 비석에 있는 비문의 첫 구절이 그것입니다. 이 글은 법정스님께서 직접 지으셨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이 사적비를 왜 절 가까이에서 두지 않고 멀찌감치 자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적으셨는지 이  
제야 알겠습니다.

이 비석은 송광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송광사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비석임을 .....  
그 첫 외침은 이렇습니다.

‘먼저 수행이 있고나서 비로소 도량이 마련되었다. 인도마갈타.....’ 定慧社

#### 덧붙이는 글

상생죽필문이 뭐냐고 종종 묻습니다.  
다음 계승으로 대답이 될런지.....  
此竹彼竹化去竹 이런대로 저런대로 되어가는 대로  
風打之竹浪打竹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萬事不如吾心竹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니  
然然然世過然竹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대로 보내세.

## 타락하지 않는 길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로서 타락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을 말하리니 명심하라.  
비구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화순和順하고 위아래가 서로 받들며 선행을 쌓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느니라.  
서로 화합하여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음을 향해 노력하되 게으르지 않아  
악마에게 굴복당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세상일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영화榮華에 힘쓰지 말아야 하느니라.  
세상의 잡된 서적을 읽지 말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잠을 많이 자지 말고 항상 마음이 깨어있어야 하느니라.  
세상의 음양술수陰陽術數를 배우지 말고 남에게 가르치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수행에만 힘써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세상의 잡된 일을 떨쳐버리고  
부질없는 생각도 하지 말라.  
떨쳐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삼매 또한 얻지 못하느니라.”

증일아함경 제34:칠일품 1-2:(2-738중)



송광사 대웅전 조사단 탕화

## 발원發願

불각佛覺 | 치문

따뜻한 봄날 불안한 마음으로 송광사 치문반 방부를 들이기 위해 문수전에서 대기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신없던 봄산철을 보내고 힘들었던 여름 하안거도 지나고 가을산철을 지나 이제 동안거를 보내면 치문을 마치게 됩니다.

남다른 감회가 듭니다. 14세 때 정신 분열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 하여 6개월간 뇌를 전기로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기치료를 받고 폐인으로써 길고 끝없는 고통의 무간지옥 같은 삶이 시작 되었습니다. 유명한 정신병원과 명의라는 한의원은 다 찾아다녔고, 단식도 해보았고 무당과 점쟁이도 찾아 다녔으나 모두 차도가 없었고, 지나간 세월 과다한 약 부작용으로 생명 다하기를 기다릴 때 부처님께서 저에게 다가 오셨습니다. 고통을 이기기 위해 마음속 항상 불佛 자를 새긴 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얻어 우연히 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정신환자를 치료하며, 부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기인을 만나 병의 근본이 지난날 나의 죄업의 인과라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습습熟習과 삿뺏어지고 잘못된 탐진치貪嗔癡로 인한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의 과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법문과 참회 기도 생활 10년을 거쳐 이제는 병고에서 벗어났기에 외람되나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마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이 없고 병후유증으로 힘들게 행자 시절을 마쳤으나, 수계 후 결국 대중생활을 못할 지경에 이르러 부모님과 주위의 도움으로 산속 깊은 곳에 한 칸 방을 짓고 3년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늦게나마 도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인사 사미반에 방부를 들였습니다. 그 당시 해인사 강당이 해체되는 불상사가 생겨 많은 경책과 육체적 힘든 생활을 이겨낸 보람도 없이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그 후 불국사, 통도사 강원에서도 치문반 수료를 한달 남짓 남겨두고 홀로 산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쉬고 다시 나선 송광사 치문반 생활을 이제 한달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년 치문을 수료해야겠습니다. 송광사 강원의 도반과 윗반 스님들께서 저만 보면 조금만 인욕을 더하여 이번에 치문을 마치고 졸업하라고 격려 해주십니다. 얼마 전 대교반 스님께서 산에서 캐 오신 산더덕을 주셨습니다. 소임자 스님들과 윗반스님 도반스님들 모두가 저를 배려해 주십니다. 이 글을 통해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산혜연선사 발원문의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고...' 이 구절 말씀처럼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나 영혼의 고통 속에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모두 성불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定慧社

# 설염雪焰

효산曉山 | 대교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오늘 눈이 옵니다.  
기다렸던 어제는 오지 않아 벌써 잊었더니만  
다음날 보란 듯이 하얀 세상, 몸 둘 바가 없습니다.  
화엄전華嚴殿가는 길의 세죽細竹에도 눈이 앉아, 서슬 푸른  
댓잎 위에 녹지 않는 화두話頭처럼 서걱서걱  
서로 부대끼며 곧게 제 삶을 곧추 세웁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아 믿음대신 가시울타리를 세우고  
오실 이가 없을 것이므로 마중 가야 할 길조차  
없다라며 불신不信은 제일 먼저 나부터 버렸습니다.  
내가 나를 버린 길, 그 폐허의 길 위로 그날처럼  
눈이 옵니다.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이미 나는 귀마저 지워버렸으므로 살아생전  
찾아 뵈려 눈마저 잊었습니다. 애통哀痛의 마음마저  
후레자식처럼 후레자식처럼, 남겨준 무언가  
있다가에 산목숨의 언행로는 전해주지 못한,  
절절切切하여 죽어서도 곳곳히 앉아 전해주고  
싶었던 무언가 있었다기에, 에라이! 에라이!  
후레자식처럼 값할 수 없는 위대한 유산 앞에  
삼배 올립니다. 눈물이 나지 않으니 부릅뜨고  
당신을 볼 밖에 일이 없습니다. 예의가 아니다 하시면  
잠시 눈뜨셔서 나무랄 일들을 간절히 간절히 기다립니다.  
설총이 옵니다. 잊지 않아야 할, 댓잎푸른 서슬 위에서도  
살 에리도록 잊지 않아야 할, 그 위를 밟고 자욱도 없이  
가신 길없는 길을, 한 하늘 아래 온 세상이 거짓말처럼  
하얗게 걷는 그 풍경마저 뜨겁게 뜨겁게 불꽃처럼 안으며  
가셨던 당신. 계정혜戒定慧 삼학을 의지하여 한 평생 올곧하게  
정진하여 나아가신 당신의 영정 앞에 이 글을 바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스님의 연꽃 다비화에 불이 당겨지자 눈발이 더욱 날리는 듯 했습니다. 대중들은 모두 일제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을 념念하였고 저는 거화봉을 들고 불을 붙이시던 한 원로스님의 환한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참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죽음 곁에서 그렇게 환한 축복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태어남보다 축복된, 살아온 날보다 축복된 단 하루! 그 죽음의 날. 참 뜨거우셨을 텐데도 오히려 저 세상엔 서슬 푸른 눈발로 가셨습니다.

‘순수하게 용맹스럽게 하라’ 항상 하시던 말씀처럼, 오히려 맵디 맵운 서릿발로 불꽃을 켜어 용맹勇猛의 화로에 었듯,

설산雪山이 품은 불꽃처럼, 그 설염雪焰을 내 흐릿한 동태눈에 점안點眼하시듯, 눈 깜박일 새도 없이 가셨습니다. **定慧社**



서옹 큰스님 다비식 장면

#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

보운普潤 | 치문

心은 虛空과 等할새

片雲隻影이 無한

廣大無邊한 虛空的 心界를 觀하면서  
淸淨法身인달하여 毘盧遮那佛을 念하고

마음은 허공과 같을새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생각하고,

此 虛空的 心界에

超日月의 金色光明을 帶한

無垢의 淨水가 充滿한 海象의 性海를 觀하면서  
圓滿報身인달하여 盧舍那佛을 念하고

이러한 허공 같은 마음세계에

해와 달을 초월하는 금색광명을 띠

한없이 맑은 물이 충만한 바다와 같은 성품바다를 관찰하면서  
원만보신인 노사나불을 생각하며,

內로 念起念滅의 無色衆生과

外로 日月星宿 山河大地 森羅萬象의 無情衆生과

人畜乃至 蠢動含靈의 有情衆生과의 一切衆生을

性海無風金波自涌인 海中 로 觀하면서

千百億化身인달하여 釋迦牟尼佛을 念하고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형체 없는 중생과

밖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와 대지 등 삼라만상의 뜻이 없는 중생과,

또는 사람과 축생과 꿈틀거리는 뜻이 있는 중생 등의 모든 중생들을,

금빛 성품 바다에 바람 없이 금빛 파도가 스스로 뛰노는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천백억화신인 석가모니불을 생각하고,

다시 彼無量無邊의 淸空心界와

淨滿性海와 相衆生을

空·性·相一如의 一合相으로 通觀하면서

三身一佛인달하여 阿(化), 彌(報), 陀(法), 佛을 常念하고

다시 저 한량없고 끝없이 맑은 마음세계와

청정하고 충만한 성품바다와 물거품 같은 중생들을

공과 성품과 현상이 본래 다르지 않는 한결같다고 관찰하면서

법신·보신·화신의 삼신三身이 원래 한 부처인 아미타불을 항시 생각하면서

內外生滅相인 無數衆生の 無常諸行을

心隨萬境轉인달하여 彌陀의 一大行相으로 思惟觀察할지니라

안팎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덧없는 행동들을  
마음이 만 가지로 굴러가는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이 글은 상노스님이신 금타선사께서 작작하시고 몇 일전에 입적하신 청화淸華 노스님께서 설  
說하신 보리방편문이다. 50여년을 여법하게 수행하신 분께서 아직도 당신의 앞길이 천리만  
리라고 말씀하시며,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오로지 한 지점에서 고구정녕으로 말씀하여 주신  
다. 지금도……. 보리해탈 방편문으로 송광사의 일체 유정 무정 대중 모두가 아미타불로 보이  
는 날을 준비하며 가고 싶다. 적멸寂滅의 그 지점으로……. **定慧社**



청화 큰스님 대비식 장면

#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인법印法 | 사집

눈 덮인 설산雪山 길을 먼저 떠난 그대여!

그대 향한 발길 내 얼마쯤 걸어가야,

장부丈夫 중에 장부라 떠들며 말할 수 있을까…….

일찍 찾아온 산사山寺의 어두움은 청빈한 구도자의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한다.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옛 조사스님의 말씀과 불언佛言에 그저 하염없이 목이 메여 애태워야 했던 지나긴 겨울밤. 물밑 듯이 찾아온 혼침昏沈은 이미 빈도貧道와 나란히 앉은 지 오래다. 은빛피리 하나 물고 찾아온 싸늘한 바람은 문틈 속을 비집고 들어와 한곡의 노래로 옆에 있는 그대 애써 청請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사심生死心을 다해 돈발頓發할 때는 어디가고…….

석 달 90일. 이 어찌 빈곤한 도반과 벗 삼기엔 빈도貧道の 모습이 몹시 애처롭구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은빛 바람은 빈도의 마음 일깨우고, 애처로운 그대 위해 흩날리는 하얀 눈꽃은 포근한 자리 되어준다네.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척량 골을 곧추세워 몇 번이고 또 절절切切히 마음 내니, 빈곤한 벗들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림 같이 밝게 뜬 달빛이 범희法戲 충만한 빈도貧道の 마음 환히 비추니, 천하天下에 배부른 포대화상이 부러울까.

다시금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일구一句에 대해 날이 밝도록 이내 정수리에 나무 한 그루 심어 보련다.

한 잔의 맑고 청량한 보살천菩薩天과 험진세嫌塵世의 한줌 흙으로 지나긴 겨울밤 장부丈夫의 본업本業을 다 하고자 뜰 앞이 아닌 빈도貧道の 정수리에 잣나무 하나 애써 심어보며 험진세嫌塵世의 길 위에 한바탕 무애無碍 춤을 추어 보리라. 定慧社

※ 험진세嫌塵世는 사바세계. 험악한 고통이 끊이지 않은 세상.

## 망월회심望月回心

혜명慧明 | 치문

달빛의 화사함에 책을 덮고 찻잔을 뒤로하고  
한가로이 앞산을 바라본다.  
산등성이에 걸터앉은 둥근달이  
삐죽삐죽 내민 나뭇가지의 높낮음에 가리어  
제대로의 달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마음 속에서 세속의 날카로운 칼이  
눈에 거슬리는 나뭇가지를 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다.  
한 순간! 무명초 처버린 이 내 모습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옛 선사의 가르치심에  
나뭇가지의 모습이 사라지고 눈 앞엔 둥글 둥글 보름달!

한 평생 살아움이  
재욕, 색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 다섯 가지 욕심과  
즐거움, 분노심, 근심, 두려움, 사랑, 미움, 소유욕 일곱 가지 감정의  
더러운 물건 같은 인간이니  
앉아서는 망상을 행함에는 악업을

이제사 잘못을 깨달으니  
명예와 이익을 버린 호심출가好心出家를 다시금 되새기어  
전생前生에 지은 죄 참회하고 닦고 닦아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하리라.

이 세상 몰록 광명의 불국세계요  
이것이야말로 나의 본래의 마음이요.  
본래의 모습!  
있음도 모르고 없음도 모르니  
허탈한 웃음만이 저절로 나오네.

# 독백

향음향품 | 사집

얼마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들 사이로 흘러갔을까  
억겁의 세월동안 우리는 또  
몇 번을 만났다 헤어진 걸까

지금  
무슨 미련이 있어 다시  
기다리는 걸까  
끝없는 인연의 강줄기  
결코 바다에 닿은 적이 없어  
풀어 보지 못한 삶의 의문이어

답답한 가슴 하늘을 보매  
무심히 떠가는 흰 구름 속 하얀 꿈  
나는 오늘도 하루를  
왜 사는지 모른 채  
그저 나아가고 있다

# 깨닫는 세월

해문海文 | 치문

어제는 얇은 옷이 어울렸고  
오늘은 두터운 옷이 그리워 졌다.  
산책길에 떨어진 낙엽들도  
잠에서 덜 깨어 부스스 앉아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다른 세상에서 존재하는 다른 이의 모습인가?  
결코 나 자신의 의지와 책임만은 아닌 듯.....

한량없이 부끄럽다.  
어둠 속 저 멀리서 부터  
촛불은 외로이 타오르고 있건만  
바람은 왜 이다지도 세찬가.

# 나아닌 너의 눈물

능혜能慧 | 치문

너의 가슴 속에 못 다한 이야기는  
기어이 비가 되어 대어 낸다.

너로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상의 모든 고통 받아 들여야 했다.

이것으로 텅빈 내 가슴은 회오리 쳐 오고  
온 몸은 사시나무 마냥 갈길 몰라 떨고 있다.

네가 참아야할 눈물은  
너로서는 어찌지 못할 구차한 너의 역사인가.  
바람에 날리어진 꽃씨의 선택인가.

또한 너는 그렇게도 슬펐던가.  
감추은 밤의 눈물이 새벽이 되도록  
빗물로서 한없이 내리운다.

나또한 너의 빗물로서 마른 가슴에 적시운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빗물, 밧물, 닛물, 닌물, 눈물, 눈……



# 「대승기신론소별기大乘起信論疎別記」를 통해 본 수행법修行法

대정大定 | 사교

## 1. 서분序分

사교반이 되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보면서 가장 반가웠던 것은 경은 물론 논서를 포함한 모든 경전이 현실을 외면한 한낱 관념불교의 논쟁거리가 아닌 대승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확인할 수 있어서였다.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증장하는 방법과 수행차례는 물론이고, 수행을 방해하는 마구니가 무엇이고, 어떻게 방해하는지,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다만 불법佛法이 어렵고, 구체적인 수행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경전은 찾아보지 않고 망어중죄를 짓는 일이며, 참으로 불법인연이 박한 일이다.

이 글을 쓰는 본인 역시 초학임에도 불구하고 대승기신론에서 설한 수행방편을 공부삼아 정리하고, 더 나아가 이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신심을 증장하는 인연을 짓기 위해 이 글을 써보았다.

이 글을 쓰면서 저본으로 인용한 판본板本은 통도사판본通度寺板本の 「대승기신론소별기회본大乘起信論疎別記會本」이며 판본 전거典據는 쪽 표기만 했다.

## 2. 정종분正宗分

수행법을 정리하기 전에 우선, 기신론의 대의大意 및 제목을 해석한 후, 열반에 들지 못하게 하는 의혹疑惑과 사집邪執을 여의는 ‘대치사집對治邪執’ 과 발심發心정도에 따라 수행법을 설한 ‘분별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 그리고 사신四信, 오행五行, 승방변勝方便 등 수행법들이 자세히 설해진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으로 나누어 수행법을 정리했다.

### 1) 대의大意 및 해제解題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은 무량무변無量無邊한 뜻으로 종지宗旨를 삼고, 이문일심二門一心으로 법의 요체를 삼았으며, 이문二門안에 일체를 개합開合이 자재하고 입파入破가 걸림이 없음이 기신론의 종체宗體이다.<sup>1)</sup>

해제解題하면, ‘대승大乘’ 이란 무량無量, 무변無邊, 무애無碍하기 때문에 일체에 널리 두루함을 말하고, 『허공장경虛空藏經』<sup>2)</sup>에서 대승이란, ‘사섭법四攝法, 십선업十善業, 정공덕자량淨功德資糧, 견고순지전의堅固淳至專意, 선성취제선해탈善成就諸禪解脫, 사무량四無量<sup>3)</sup>, 선지식善知識, 지시비시知時非時, 무상고공무아지음無相苦

1) 『대승기신론소별기회본大乘起信論疎別記會本』, 송광사판본松廣寺板本, 1卷 3上 2-6. (이하 저본서명 생략)

2) 『허공장보살경虛空藏菩薩經』의 약명略名. 요진姚秦의 불타아사역佛陀耶舍譯.

3)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이타심利他心. (1)자무량심慈無量心 (2)비무량심悲無量心 (3)희무량심喜無量心 (4)사무량심捨無量心

空無我之音, 칠각지七覺支<sup>4)</sup>, 정오안淨五眼<sup>5)</sup>, 홍보弘普, 단직端直, 대비大悲, 사정근四正勤<sup>6)</sup>, 사념처四念處<sup>7)</sup>, 사신족四神足<sup>8)</sup>, 승오력勝五力, 팔성도八聖道, 일체중생무장애혜명一切衆生無障礙慧明, 무주육바라밀無住六波羅蜜, 무애사체無碍四諦' 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이는 스무 가지 수행법을 강섭 °æ<sup>9)</sup>, 관할 轄<sup>10)</sup> 등 수레의 세부에 비유한 이십구二十句이며, 사람에 대비시킨 십구十句도 있다.<sup>11)</sup> 또한 '대승大乘'의 뜻과 성품을 『기신론소기회본起信論疏記會本』에서 세 가지, 『대법론對法論』<sup>12)</sup>에서 일곱 가지, 『현양론顯揚論』<sup>13)</sup>에서 일곱 가지로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sup>14)</sup>

'기신起信'이란 이 기신론에 의해 중생의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신起信'이라고 하였다. 즉, 이치가 실제로 있음(체대體大)과 닦아서 얻을 수 있음(상대相大)과 닦아서 얻을 때 무궁한 공덕의 작용이 있음(용대用大)을 믿는 것이다.<sup>15)</sup> '론論'은 결정적으로 궤범이 될 만한 글을 건립하여 매우 깊은 법상의 도리를 판단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결판決判의 뜻에 의해 논이라 했다. 총괄하면, 대승은 논외宗體요, 기신은 논외의 수승한 기능技能이니, 체용體用을 함께 들어 제목을 나타냈기 때문에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이라고 말한 것이다.<sup>16)</sup>

## 2) 대치사집對治邪執

중생이 생사고해에 빠져 열반언덕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의혹疑惑과 사집邪執 때문이고, 하화중생의 요체는 의혹과 사집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의혹에는 법을 의심하는 것으로 발심에 장애가 되고, 교문教門을 의심하는 것은 수행에 장애가 된다.<sup>17)</sup> 기신론은 이를 위해 법의심을 제거하기 위해 일심법一心法을 세웠고, 교문의심을 제거하기 위해 이중문二種門(지관止觀)을 열었다. 즉, 진여문眞如門에 의해 지행止行을 닦고, 생멸문生滅門에 의해 관행觀行을 닦는다.<sup>18)</sup> 사집邪執에는 인집人執과 법집法執이 있고 일체의 사집邪執이 모두 이견에 의하므로 나를 여의면 곧 사집을 여의게 된다.<sup>19)</sup>

## 3) 분별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

분별발취도상에서 발심發心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 수행법을 설명하였다.

첫째,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이라고 한 것은 세 가지 마음(직심直心, 심심深心, 대비심大悲心) 곧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을 내어 십주十住에 있으며 겸하여 십신十信을 취하니, 십신의 자리 중에서 신심信心을 닦아 익혀서 십

4) 삼십조도품칠三十助道品七 중 6품. 선악분별善惡分別7법法으로 (1)택법각분擇法覺分, (2)정진각분精進覺分, (3)희각분喜覺分, (4)경안각분輕安覺分, (5)사각분捨覺分, (6)정각분定覺分, (7)염각분念覺分이 있다. (구사론俱舍論 25卷)

5) (1)육안肉眼, (2)천안天眼, (3)혜안慧眼, (4)법안法眼, (5)불안佛眼.

6) (1)이생악령단已生惡令斷 (2)미생악령부생未生惡令不生 (3)이생선령증장已生善令增長 (4)미생선령생未生善令生 『창소지론彰所知論』 권하卷下.

7) 삼십조도품칠三十助道品七 중 4품. (1)신념처身念處, (2)수념처受念處, (3)심념처心念處, (4)법념처法念處 『집대승상론集大乘相論』 권상卷上.

8) 삼십조도품칠三十助道品七 중 4품. (1)욕선법정欲善法定 (2)근낙선정勤樂善定 (3)작의선심정作意善心定 (4)간선정揀善定 『창소지론彰所知論』 권하卷下.

9) 강섭 °æ 바퀴통의 구멍에 끼는 철관. (은정희역주, 원호의대승기신론소별기, p.29, 일지사, 2000)

10) 관할 轄: 수레의 굴대를 빠지지 않게 꽂는 빗장.(上同)

11) 1券 3下4-4上6.

12)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의 별칭. 『대승아비달마집론大乘阿毘達磨集論』을 해석한 것. 안혜저安慧著, 현장역玄 譯.

13)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의 약칭. 무착보살저無著菩薩著, 당현장역唐玄 譯.

14) 1券 4下2-5下2.

15) 1券 5下6-6上2.

16) 1券 6上7-9.

17) 1券 10下1.

18) 1券10下1-11上9.

19) 5券 7下4.

주+住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성취발심이라고 하였으며, 행근본방편行根本方便, 능지방편能止方便, 발기선근증장방편發起善根增長方便, 대원평등방편大願平等方便 등 네 가지 방편으로 수행한다.

둘째, 해행발심解行發心이란 심회향위+廻向位에서 평등공平等功을 얻고, 겸하여 심행위+行位에서 법공法空을 얻어 회향위回向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행발심이라고 하였다. 방편方便으로는 법계에 수순하여 육도행六度行을 닦는다.

셋째, 증발심證發心이란 초지初地이상 십지+地이니, 삼아승기겁三阿僧祇劫동안 진심眞心(무분별지無分別智), 방편심方便心(후득지後得智), 업식심業識心(무분별지와 후득지에 의한 아뢰야식阿賴耶識)등 세 가지 발심상發心相을 내어 법신法身을 증득하여 진심眞心을 일으켜 색구경처色究竟處에서 일체세간에 최고최대最高最大의 몸을 보이는 공덕이 있다.<sup>20)</sup>

또한 원효스님은 『섭대승론攝大乘論』<sup>21)</sup>을 인용해 과거에 염불삼매念佛三昧를 수습하면 금세에 불신佛身을 본다고 하였고<sup>22)</sup> 『미륵소문경론彌勒所問經論』<sup>23)</sup>을 통해 제선諸禪이 수행처가 되고, 선을 얻은 이는 제행을 잘 행한다고 하였다.<sup>24)</sup>

#### 4)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아직 정정취淨定聚에 들어가지 않은 부정취인不定聚人을 위한 수행법으로 수승한 이를 위해 신성취발심부터 증발심 등을 말하였고, 열등한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믿음(사신四信: 신근본信根本, 신불信佛, 신법信法, 신승信僧)과 다섯 가지 수행법(오문행五門行: 보시報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지관止觀)을 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신심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다섯 가지 수행방편법을 통해 신심이 물러나지 않고, 네 가지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오문五門은 육바라밀六波羅蜜을 말하며 정定과 혜慧를 합해 지관문止觀門이라 했다. 소疏에서는 진문進門과 특히 지관문止觀門에 대해 자세히 설했다.

진문進門에서는 선세죄업으로 장애와 마구니 장난이 생기므로 오회五悔(참회懺悔, 권청勸請, 수희隨喜, 회향廻向, 발원發願)를 통해 제장애를 여의고 선근을 증장토록 했다. 여기서 네 가지 장애와 오회 중 네 가지를 배대시켰으니, 모든 악업장애는 참회하여 없애고, 정법비방장애는 부처님께 설법을 권청함으로 제거하고, 타인의 수승함을 질투하는 장애는 수희隨喜로 다스리고, 삼계를 애착하는 장애는 회향으로 다스린다 하였으니 『유가론瑜伽論』과 『합부금광명경舍部金光明經』에서 설한 것과 같다.<sup>25)</sup>

지관문에서 지시는 모든 경계상을 그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 사마타관奢摩他觀<sup>26)</sup>이고, 관觀은 생멸인연상生滅因緣相을 분별함을 말하는 것이니 비발사나관毗鉢舍那觀<sup>27)</sup>이다.<sup>28)</sup> 사마타관에서는 아홉 가지 방편(심주心住) 차제가 있으니, 내주內住, 등주等住, 안주安住, 근주近住, 조순調順, 적정寂靜, 최극적정最極寂靜, 전주일취轉住一趣, 등지等持이다. 비발사나관에는 네 가지 방편(혜행慧行)이 있으니, 정사택正思擇, 최극사택最極思擇, 주변심사周尋思, 주변사찰周伺察이다. 방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면상 생략하고 지시와 관觀을 각각 닦는 것

20) 5卷 11上 5-19上9.

21) 무착보살술無着菩薩述, 불타선다역, 진제역, 현장역(섭대승론본攝大乘論本) 등 있음.

22) 5卷 22下 9.

23) 『미륵보살소문경론彌勒菩薩所問經論』의 약명略名, 후위後魏의 보제류지역菩提流支譯.

24) 5卷 23上 2.

25) 6卷 3下 4.

26) 사마타奢摩他: 범어 Samatha의 음역 지시, 지식止息, 적정寂靜, 능멸能滅이라 한역함.

27) 비발사나毗鉢舍那: 범어 Vipāśyanā의 음역. 비파사나毗婆舍那라고도 음역. 관觀이라 한역함.

28) 6卷 4上 7.

과 함께 닦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지시는 정처靜處에서 뜻을 바르게 하고, 형색形色에 의지하지 않고, 공공에 의지하지 않으며, 지수화풍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참고로 정처에 다섯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정처에 한거間居함이고, 둘째는 지계가 청정함이요, 셋째는 의식衣食이 구족함이요, 넷째는 선지식을 얻음이요, 다섯째는 모든 반연攀緣하는 일을 쉬는 것이다. 소疏에서 지나칠 만큼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지시만 닦으면 선수를 즐기지 않고 대비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觀을 닦는다고 했으며 법상관法相觀, 대비관大悲觀, 서원관誓願觀, 정진관精進觀 등 네 가지 방편이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새의 양 날개와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여 지관을 함께 닦음으로써 이치의 편벽됨이 없음을 함께 행해야 하고, 지를 닦을 때 생기는 장애(세간주저世間住著, 이승겁약지견二乘法弱之見)와 관을 닦을 때 생기는 장애(협렬심狹劣心, 불수선근不修善根)를 함께 대치하여 쌍으로 없애야 한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함께 닦지 않으면 보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 방편으로 염불念佛방편을 설했으니, 사바세계에서 제불을 친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신심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걱정하는 중생을 섭호攝護하기 위해 서방교주 아미타불을 염하고 회향하여 극락왕생을 발원하면 부처님을 친견하고 필경에 왕생하여 정정正定에 머문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일체중생을 위하는 대비심을 알 수 있다.

### 3. 유통분流通分

요즘 동안거 반결재를 맞아 송광사에서 정진기도로 칠일간 자비수참慈悲水懺를 행하고 있다. 그 내용이 기신론의 오회五悔중 참회법만을 상세히 한 참회수행법이고, 자비수참을 지으신 오달국사나 기신론과 소를 지으신 마명보살, 원효스님의 일체중생을 위한 대비심을 구절구절마다 느낄 수 있어 더욱 환희심이 난다. 이 글 인연으로 일체중생이 한 걸음 더 부처님 되시기를 발원한다.

별첨으로, 기신론을 공부하는 이를 위해 기신론 논저목록을 첨부했다. 定慧社

#### <별첨>

##### ▶「대승기신론」 논저목록(가나다순)

- 『감산의 기신론풀이』, 감산지음, 오진탁 옮김, 서광사, 1992.
- 『국역원효성사전서』, 권5, 한길로, 원효전서국역간행회, 1988.
- 『기신론』, 거부스님, 수덕사승가대학, 2001.
- 『기신론』(현토), 탄허스님, 교림, 1994.
- 『기신론』(현토,역주), 탄허스님, 교림, 1994.
- 『기신론사기』, 해인사강원.
- 『기신론삼론』, 한정섭편저, 법륜사.
- 『기신론의 세계』, 임진부, 창우사, 1993.
- 『대승기신론』, 이홍우, 경서원, 1991.
- 『대승기신론』, 감산대사 해, 송찬우 역, 세계사, 1993.
- 『대승기신론』, 법장한역, 원조각성 번역해석, 현음사, 2000.
- 『대승기신론』, 이병우 역주, 경서원, 2000.
- 『대승기신론』, 원조각성 역, 현음사, 2000.
- 『대승기신론』, 석법성, 운주사, 2003.
- 『대승기신론』, 이병우, 경서원.

『대승기신론 강의』, 고산스님, 보련각, 1977.  
 『대승기신론 사상연구(I)』, 박태원, 민족사, 1994.  
 『대승기신론 이야기』, 가마타 시게오 저/장휘옥 역, 장승, 2000.  
 『대승기신론』(양역대조), 명석, 혜달 저, 경서원, 1998.  
 『대승기신론』(영문), 경서원, 2001.  
 『대승기신론강의』, 전종식, 한국예절문화원, 1999.  
 『대승기신론강화』(불경총서1), 월운학인술, 불천, 1993.  
 『대승기신론과소와별기』, 김무득, 경서원, 1991.  
 『대승기신론소기회열』, 법장술소, 종밀록주, 자선수기, 속법회편, 속법법사회편(CH560-1575).  
 『대승기신론소필삭기』, 법보원판, 법장소, 장수기, 성충편, 중앙승가대학교.  
 『대승기신론송』(위대한마음그믿음의노래), 전종식, 백련불교연구회, 1999.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주석의 비판적연구』上, 전종식, 대승기신론연구회, 2003.  
 『대승기신론정해』(보정판), 전종식, 한국예절문화원, 2000.  
 『대승기신론직해』, 학담 편역, 큰수레, 2002.  
 『근속장경』71권.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소광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불교대계』1, 불교대계간행회장판.  
 『삼역기신론』, 우진 저, 부다가야, 1996.  
 『원효사상』, 이기영, 흥법원.  
 『원효사상 세계관』(이기영전집 1권),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  
 『원효사상연구』2 - 불연 이기영 전집 01,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 2001.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은정희 역주, 일지사, 1991.  
 『이본기신론』, 혜엄우진 저, 부다가야, 1997.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 대승기신론 원효소.별기』, 원순역해, 법공양, 2003.  
 『한국불교사상전집』1, 이기영 역, 삼성출판사, 1981.  
 『한국의 사상대전집』I(원효외), 성낙훈 역, 동화출판공사, 1972.  
 『한글대장경 대승기신론소별기』, 김달진 역, 동국역경원, 1995.

#### ▶(소고/논문)

「기신론 단상」, 해월, (『수다라』13호).  
 「기신론 대강」, 무득, (『수다라』12호).  
 「기신론사상의 연원에 대한 고찰」(『뿌리없는 나무에 핀꽃』中), 지운, 법공양.  
 「기신론에 나타난 원효의 覺사상」, 남정래, (『석림』8호).  
 「기신론에서의 존재의 모습」, 상현, (『수다라』12호).  
 「기신론찬술문제에 대한 제설의 검토」, 원철, (『수다라』6호).  
 「대승기신론 주석서의 관점 비교연구」, 김광주(지운).  
 「대승기신론과 화엄사상」, 박태원, (『가산학보』4호).  
 「대승기신론에 대한 고찰」, 대우, (『수다라』11호).  
 「대승기신론에 대한 고찰」, 도홍, (『수다라』3호).  
 「대승기신론에 대한 소고」, 법공, (『수다라』2호).  
 「대승기신론의 진여연기설의 연구」, 은정희, 고려대 석사논문, 1972.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에 나타난 신앙」, 은정희, (『원효학연구』2집, 1997).

# 몽산법어蒙山法語(영역) 3

해안海眼 | 사교

蒙山和尚示惟正上人

몽산화상이 유정상인에게 보이심

Mongsahn Instructs Venerable Yu Jeong

원문)1. 五祖演和尚<sup>1)</sup>이 示衆云호대 釋迦<sup>2)</sup>彌勒이 猶是他奴라하니 他是阿誰오 直下悟徹하야 道得諦當하면 可以超脫分段生死<sup>3)</sup>하리니 更進竿頭闊步<sup>4)</sup>하야사 了大丈夫事業하리라

한역) 오조법연法演 화상이 대중에게 보여 이르시되 「석가와 미륵이 오히려 남(他)의 종」이라 하였으니, 남은 누구일까? 직하에 깨달아서 옳게 이룬다면 가히 분단생사分段生死를 초탈超脫하리니, 다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나아가 활보 하야야사 대장부의 사업을 마치리라.

- 
- 1) 오조법연五祖法演:(?~一一〇四) 속성은 등鄧씨. 사천성 면주부綿州府 파서巴西에서 났다. 삼십오세에 출가하여, 처음엔 강당에서 <백법百法> <유식론唯識論>같은 것을 공부하였다. 뒤에 백운수단白雲守端 선사의 회상에 가서 있을 때, 어떤 스님 남전南泉 화상의 '마니주 화두'에 대하여 묻는데, 백운선사가 크게 꾸짖는 것을 듣고 곧 깨치어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아래와 같은 계승을 지어 바쳤다. 「저 산 밑에 한 뼤기 묵은 밭, 왜 즐기노 노인에게 물었더니, 몇 번 팔고 또 산건, 대숲과 소나무에 맑은 바람 온다고(山前一片閑田地 又~ 問祖翁 幾度賣來還自買爲隣松竹引清風)이에 백운선사의 인가를 받고, 그의 법을 이어서 서주舒州 사면산四面山에서 출세하였다. 다시 백운산, 그 다음에는 태평산太平山, 마지막으로 기주 卮 오조산동선사 五祖山東禪寺)에서 크게 교화하여 많은 제자가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불안청원佛眼淸遠·태평혜근太平慧勤·원오극근·圓悟克勤은 오조 문하의 세 부처라고 하였다. 송나라 휘종徽宗 송녕崇寧 三년에 팔십여 세로 입적하였다.
  - 2) 석가釋迦:(범)Śākyamuni 한문으로는 음대로 써서 석가모니釋迦牟尼또는 석가문釋迦文이라 하고, 줄여서 석가釋迦라 한다. 뜻으로 번역하여 능인적묵能仁寂默 또는 능적能寂·능유能儒라 한다. Śākya는 종족(種族)의 이름이고, muni는 존칭이니, 곧 '석가 종족에서 나신 거룩한 어른'이란 뜻이다. 서력 기원전 五六五년( '중성점기衆聖點記' 를 표준한 연대)에 중인도 가비리迦毘羅(Kapila-vastu) 성주 정반왕淨飯王의 태자로 나시었다. 태어난 지 칠일만에 어머니 마야부인摩耶夫人을 잃고 이모인 파사파제波提에게 자랐다. 어릴 때 이름은 교담마喬答摩(Gautama;Gotama) 혹은 실달다悉達多(Siddhartha)라 하였다. 어려서 온갖 학문과 무예를 고루 배워서 정통하고, 열일곱 살에 선각왕善覺王의 딸 야소다라耶輸陀羅와 결혼하여 한 아들을 두었다. 그 나라의 제도에 종교와 학문을 차지한 바라문족과, 정치와 군사를 차지한 왕족과, 그 다음으로 평민과 노예족의 네 가지 계급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개혁할 뜻을 늘 품고 있었다. 하루는 농부들이 밭가는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으로 어떤 이는 불벌에 죽도록 일하고, 어떤 이는 놀기만 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과,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는 참혹한 일을 아픈게 생각하여, 모든 것이 평등하고 싸움과 슬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국가와 사회 문제에 대하여 번민하였다. 다시 인간에는 살아가고 늙고 병들고 죽는 큰 고통이 있음을 느껴, 누구나 다같이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할 도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우주의 온갖 것에 대하여 생각하여 갈수록 의문 아님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드디어 열아홉에 왕궁을 뛰쳐나와 산중으로 갔다. 처음 육년 동안은 바리문 교도들이 하는 대로 심한 고행苦行을 하다가, 육체를 괴롭히는 것만이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고, 몸을 부지해 가면서 마음을 닦아 서른살에 비로소 우주의 진리를 크게 깨쳐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었다. 그 뒤 사십구년동안 쉼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묘한 법을 가르쳐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시고, 여든살(기원전 四八六년)에 그의 육신은 세상을 떠났다.
  - 3) 분단생사分段生死: 육도六道 윤회하는 범부들의 생사. 분단은 분한分限과 형단形段이란 뜻. 범부는 각기 업인業因을 따라서 신체에 크고 작으며 가늘고 굵은 형단이 있고, 목숨에 길고 짧은 분한이 있어 부분단단分分段段으로 생사하므로 분단생사라 한다. 상대어는 변역생사變易生死이다.
  - 4) 간두활보竿頭闊步: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머무르면 이것은 향상向上的 죽은 놈이 되므로 다시 이 간두竿頭에서 일보를 나아가서 전신全身을 던져야 시방세계에 전신을 나투어 종횡자재縱橫自在하는 묘용을 행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무애理無碍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사무애事無碍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영역) O Jo BeobYeon addressed the assembly saying “Sakyamuni and Maitreya are rather slaves to another. who is this other?” If you can awaken on the spot and subtly accord with the Way, you will be able to transcend the stages of birth and death, but you must take another long stride off a hundred foot pole to finish the work of a great hero.

2. 惟正上座는 能悟徹也아 未아 否則急宜惺惺하야 下眞實工夫하야 如法參究하야 以大悟로 爲入門호리라

유정상좌는 능히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못 깨쳤거든 급히 정신을 차려 진실한 공부를 하야 법다이 참구하야 크게 깨침으로써 문에 들어옴을 삼을지니라.

Venerable Yu Jeong, have you been able to awaken or not? If not then you must quickly become clear, and sincerely engage in meditation work. Investigate as prescribed, taking great enlightenment as your gate of entry.

3. 所謂參究者는 當疑釋迦彌勒이 是佛이시거나 因甚하야 猶是他奴오 畢竟에 他是阿誰오하리니 疑得盛커든 却提  
~ 他是阿誰하야 廻光自看호리라

소위 참구한다는 것은 반드시 「석가와 미륵이 부처님이신데 어찌하야 오히려 남의 종인가? 마침내 남은 누구일까?」하고 의심할지니, 의심이 잘되거든 또 「남은 누구인고?」하는 것만을 들어서 빛을 돌이켜 스스로 볼 것이니라.

When you investigate, you should doubt in the following manner, “Sakyamuni and Maitreya are both Buddhas, so how can the be slaves of another? At the end of the day, who is this other?” As the doubt increases, just bring up the phrase “who is this other?” turn the light around and investigate yourself.

4. 不要用心太緊이니 緊則動色心하야 生病하리라 不可太緩이니 緩則忘却話頭하야 入昏沈掉舉去也하리라 妙在善用其心하야 發眞正信心하야 捨盡一切世間心하고 惺惺密密提~ 하면

반드시 마음을 너무 급하게 쓰지 말지니, 조금하게 쓰면 색심色心이 동하야 병이 나리라. 너무 느즈러지게 말지니, 늘어진즉 화두를 잊어버리고 혼침과 잠념에 들어갈 것이다. 묘하기는 그 마음을 잘 썸에 있나니, 진정한 신심을 발하야 온갖 세간 마음을 다 버리고 성성惺惺하고 밀밀密密하게 화두를 잡드려 가면

You must not strain your mind too much, strain stimulates the heart and leads to sickness. You must also not be too lax, as you will forget the hwa ь and enter states of dullness and scattering. The art is in skillful use of the mind. Just give rise to upright faith, relinquish completely all worldly thoughts, and keep the hwa du clearly and closely. It will be easiest to attain strength when sitting.

5. 於坐中에 最易得力하리니 初坐時에 精神<sup>아</sup> 精神<sup>ㅈ</sup> 精神<sup>하</sup>야 放教身體로 端正이언정 不可背曲이니라 頭腦를 卓豎하고 眼皮을 不動하야 平常開眼호리니 眼睛이 不動하면 則身心이 俱靜하리니 靜而然後에사 定이니라

좌중坐中에 득력得力하기가 가장 쉬우리니, 처음 앉을 때에 정신을 차려 몸을 쭉 펴고 단정히 할지언정 등을 굽히지 말지니라. 머리를 우뚝이 세우고 눈시울을 움직이지 아니하야 눈을 보통으로 뜨리니, 눈동자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곧 몸과 마음이 함께 고요해지리니 고요한 뒤에서 정定에 들게 되리라.

When you first begin to sit, gather your spirits and straighten your body. Do not bend your back or hold your head high, keep your eyes open and fix your gaze in one place. Your mind and body will then settle down and begin to enter concentration.

6. 定中에 却要話頭를 現前호리니 不可貪定하고 而忘話頭니라 忘則落空하야 反被定迷하야 無有是處하리라 定中에 得力이 易나 却要惺惺不昧하리라

정定 가운데 또 모름지기 화두가 뚜렷이 나타나야 하나니, 정을 탐하여서 화두를 잊으면 안 되느니라. 화두를 잊으면 공중에 떨어져 도리어 정의 미迷함을 입어서 옳지 않으리라. 정 가운데 힘을 얻기는 쉬우나, 반드시 성성惺惺하여 매昧하지 말아야 하리라.

In concentration, the hwadu must appear before you, you must not be greedy for concentration and forget the hwadu. If you forget the hwa du, you will fall into emptiness and enter a deluded state of concentration. This is not correct. In a state of concentration it is easy to attain strength, however you must be clear and not blind.

7. 忽有一切好惡境界現時어든 都不要管他이니라 話頭가 分曉하면 倏忽境界自清하리라 起定之時에 緩緩動身하야 護持定力호리니

문득 일체 좋고 꺾은 경계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 전혀 저를 상관치 말지니라. 화두가 분명하면 순식간에 경계가 자연히 깨끗해지리라. 정에서 일어날 때에도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정력을 보호하여 지켜야 하리니...

If suddenly all kinds of pleasant or unpleasant states appear before you, you should not pay any attention. If the hwadu is bright and clear, these states will clear up of themselves. When you get up from meditation, move your body slowly, preserving the state of concentration.

8. 於動用中에도 保持得話頭하야 有疑를 提<sup>ㅎ</sup>하면 不用力하야도 綿綿密密하야 無有間斷時엔 工夫가 漸漸成片하야 得如澄秋野水가 湛湛清清하야 縱有風動하야도 是清波이리라

동용중動用中에도 화두를 편안히 지녀서 의심을 잡드리하면 힘을 쓰지 아니하여도 면면綿綿하고 밀밀密密하야 간단間斷이 없을 때에는 공부가 점점한 조각을 이루어서 맑은 가을에 들물이 맑고 깨끗한 것과 같아서 비록 바



람이 불더라도 모두 맑은 물결뿐이리라.

You should also keep the hwadu in your daily activities. If there is doubt, then even though you don't make any effort, it will become subtle and refined, and when it is kept uninterrupted, your meditation work will gradually form a mass, pure and clear like a stretch of water in the autumn. Even though the wind may blow, ripples on the surface are clean.

9. 到如是時하얀 大悟가 近矣리니 却不得將心하야 待悟이니라 不要求人穿鑿하며 不要思量卜度하며 不要求解會하고 但提話頭하야 看호리라 若其他公案에 有疑커나 及經典上에 有疑어든 盡攝歸來他是阿誰上하야 看호리라

이런 때에 이르르면 큰 깨달음이 가까우리니, 문득 마음을 가져 깨치기를 기다리지 말지니라. 남에게 천착穿鑿 해주기를 구하지 말며, 모름지기 사랑思量하고 점쳐 헤아리지 말며, 모름지기 해석하여 알기를 구하지 말고 오직 화두만 들어 관찰지니라. 만약 다른 공안에 의심이 있거나 또 경전상에 의심이 있거든 다 모아서 「남은 이 누구인고?」라고 한데에 가져다가 볼지니라.

When you reach this state, great enlightenment is near, however you must not wait for it nor wait for someone to push you through. You must not indulge in extraneous thoughts or considerations, nor seek understanding or knowledge; just arouse and investigate the hwadu. If you have doubt on any other Kongan or on the Sutras, bring them all together and return to your investigation of “who is this other?”

10. 衆疑逼發하야 築着嗑着하야 因地一聲에 正眼이 開明하면 便能下得到家語와 投機<sup>5)</sup>語와 箭鋒相<sup>6)</sup>語하며 識得差別機緣하야 前來所有一切疑碍가 氷消無餘하리라

몹 의심이 다 그쳐서 폭발할 때에 댕돌 맞듯 댕돌 맞듯 해서 ‘아!’ 하는 한 소리에 바른 눈이 열려 밝아지면, 문득 능히 집에 이른 말과 기연機緣에 맞은 말과 화살촉이 서로 맞닿은 듯한 말을 이르며, 차별기연을 알아 전에 있던 일체 의심과 막힌 것이 얼음 녹듯 하야 남음이 없으리라.

When this mass of doubts explode and gush forth like the meeting of mortar and pestle, the earth will split with a gasp and the right eye will be revealed. At this time you can talk of reaching home, and of the meeting of conditions and potentiality, or of a clashing of blades and arrows and of coming to know the differences in conditions and potentialities. All the doubts and hindrances you once encountered melt without a trace.

---

5) 투기投機: ①기機와 기機가 서로 맞는다는 뜻. ②끝까지 크게 깨달아서 불조佛祖의 심기心機에 합함. ③스승의 심기와 제자의 심기가 서로 꼭 맞는 것.  
6) 전봉상주箭鋒相 ~ 전전주봉箭箭 鋒과 같은 뜻.

11. 法法을 圓通하야 得昇堂<sup>7)</sup>已하고도 切忌小了하고 更來하라 指汝의 進步入室<sup>8)</sup>하야 了徹大事케호리라

법마다 원만히 통달하야 당堂에 오르고도 부디 적은 깨달음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오너라. 너에게 지시하야 나아가 실室에 들어 큰일을 마치게 하리라.

All phenomena are completely penetrated, and though you've been 'promoted to the hall,' don't be satisfied by any means with a small enlightenment. Come back to me and I'll direct you to advance and enter the inner sanctum, where you can complete this great work. 定慧社

---

7) 승당입실昇堂入室: 도도에 들어가는 차제次弟를 비유하는 말. 논어선진편論語先進篇에 공자가 가로되 “由(자로)는 승당昇堂은 하였지만 입실入室은 못하였느니라.”

8) 입실入室: ①선문禪門에 있어서 수행자가 깨달은 바를 점검받기 위해서 조실에 들어가 직접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것. ②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는 것.

##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 ▶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신 청화 큰스님, 월하 큰스님, 정대 큰스님, 서옹 큰스님들께서 고요한 원상(圓常)에 드셨습니다.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 ▶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과 열이 담긴 '조선사발' 조선 도공을 위한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 ▶ 청소년 수련생들의 3보 1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참 나를 찾는 수련생들의 모습들이 정말 뿌듯합니다.
- ▶ 농부들의 피와 땀방울로 이루어진 결실! 폭우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느라고 학인스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 오늘은 문풍지 운력있는 날! 스님들의 바쁜 손놀림 속에 정혜사 큰방이 포근하고 산뜻해졌습니다.
- ▶ 6박 7일간의 3급 승가고시 수계산림을 봉행하였습니다. 출가하여 참된 수행자가 되기까지의 고행과 역경을 이겨낸 과정들이 현전하고 있습니다.
- ▶ 높은 나무에 올라가 주렁주렁 달린 감을 따는 학인스님들이 아찔아찔하지만 우리들의 수행도 무르익은 감처럼 법의 향기가 가득하길 두손 모아 발원합니다.
- ▶ 태국스님들께서 강원스님들의 수행모습을 둘러보았습니다. 마하출라 승가대학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안목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 동지 팔죽 응심이!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만들면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더 화합되고 한 마음으로 여여(如如)하게 수행정진 합시다.
- ▶ 일주일간 자비수참기도를 무사히 회향하였습니다. 身·口·意 3업으로 지은 죄와,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와, 일체 모든 죄를 모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 ▶ 야~아 신난다!!! 동안거 반결제 원족산행. 조계산 굴목재를 넘어 선암사를 경유하여 천불천탑의 도량인 운주사를 답사하고 무사히 귀사 하였습니다.



2003년 8월 6일~8일 선시 특강



8월 5일 무장무애 7일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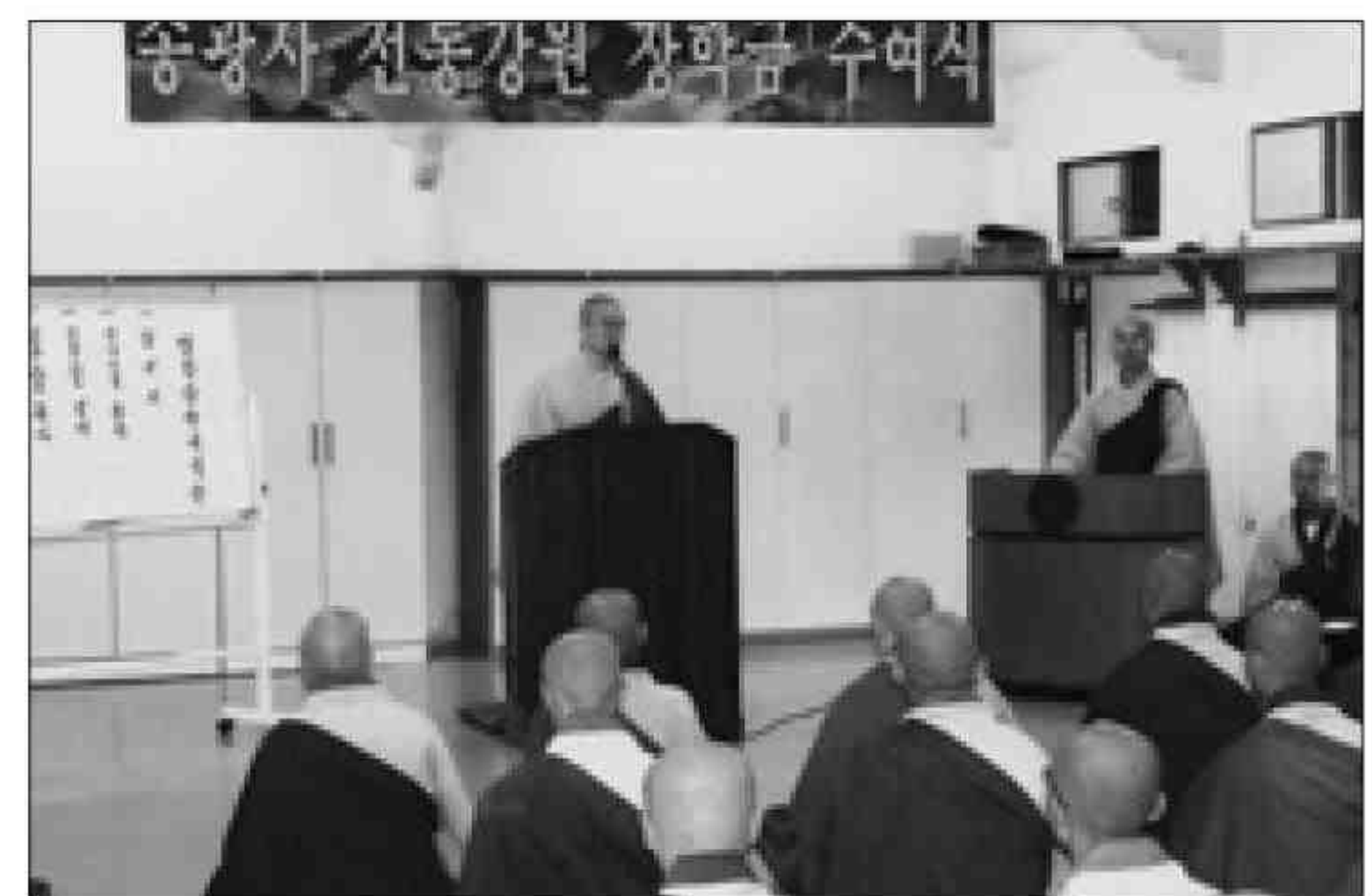
8월 8일 원증당 일철스님 다비식



8월 8일  
다도인 수련회



8월 9일 조선도공을 위한 추모제



8월 11일 장학금 수여식



8월 10일~13일  
청소년 수련회



9월 18일 수해복구 대민봉사



9월 22일 문바르기 운력



9월 27일  
효봉대종사 추모제



9월 27일 강원 총동문회



10월 1일~7일 제3회 승가고시 산림



10월 8일  
회순 유마사상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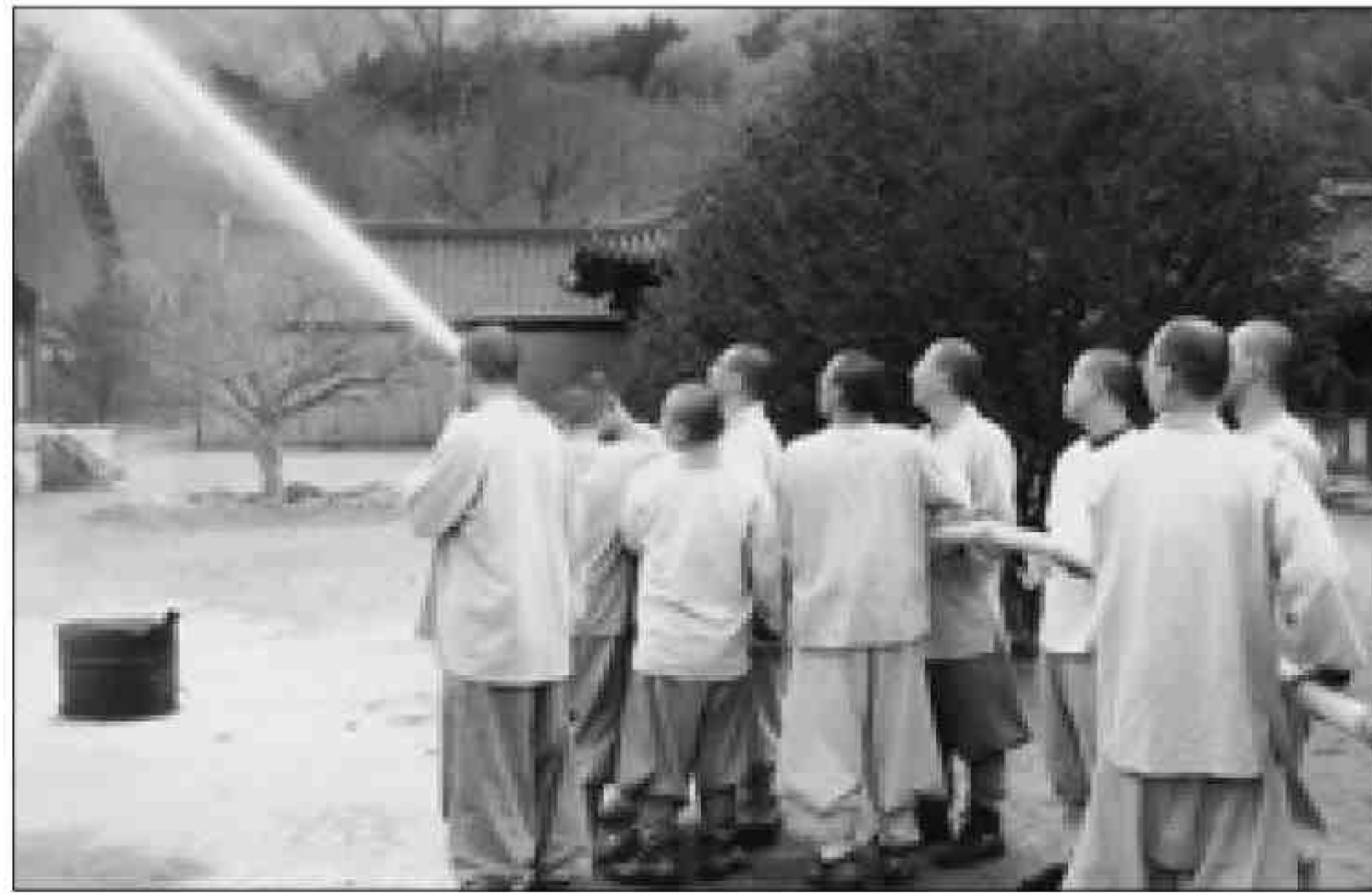
10월 12일 감따기 운력



10월 16일 전국승가학인대회



10월 19일  
여순사건 합동위령제



11월 15일 소방훈련



10월 23일 태국왕립 마하출라 승가대학 방문



11월 16일  
청화 큰스님 대비식



11월 18일 무우운력



11월 25일~26일 김장운력



12월 6일  
구산스님 추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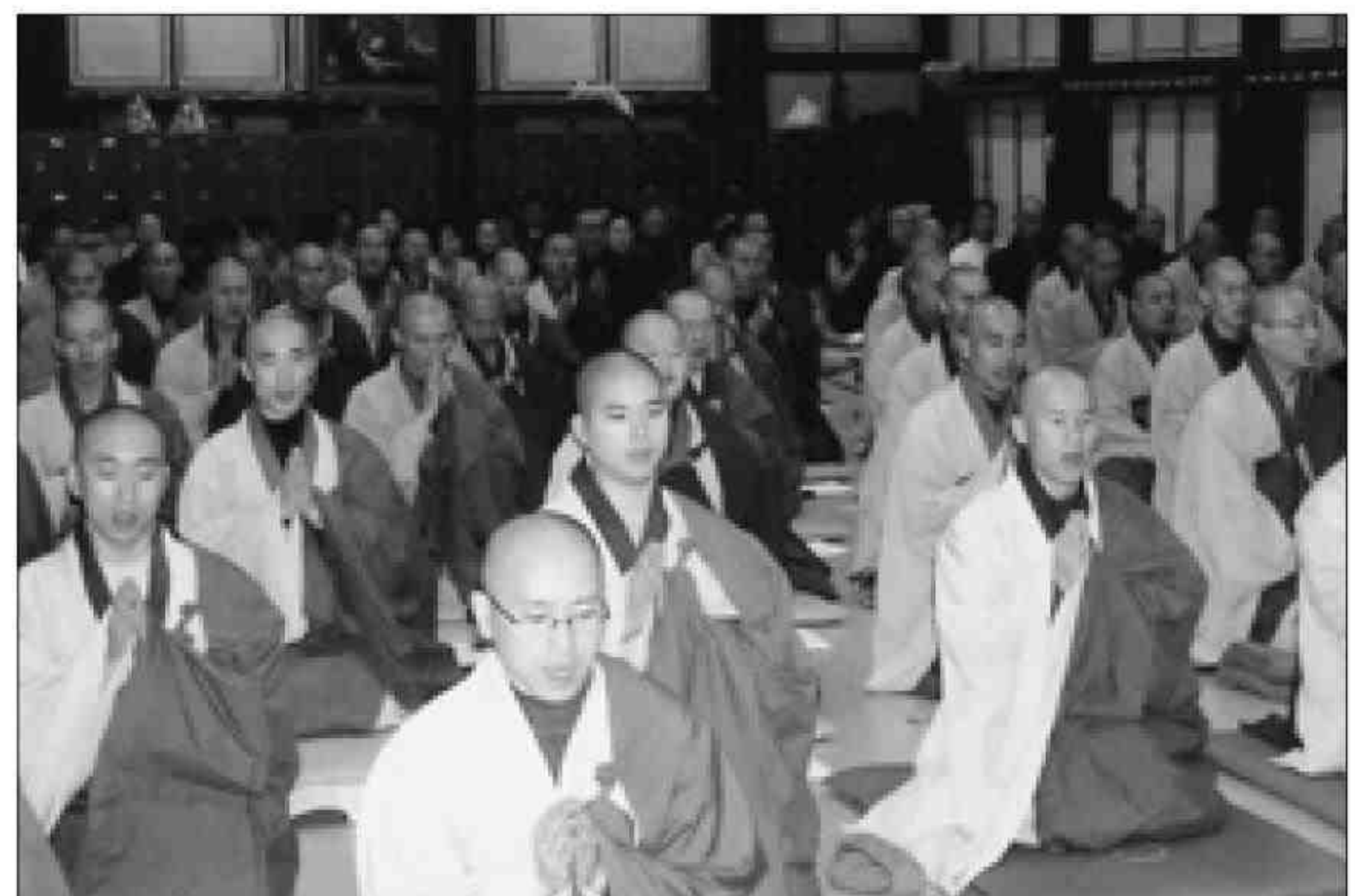
12월 10일 월하 큰스님 다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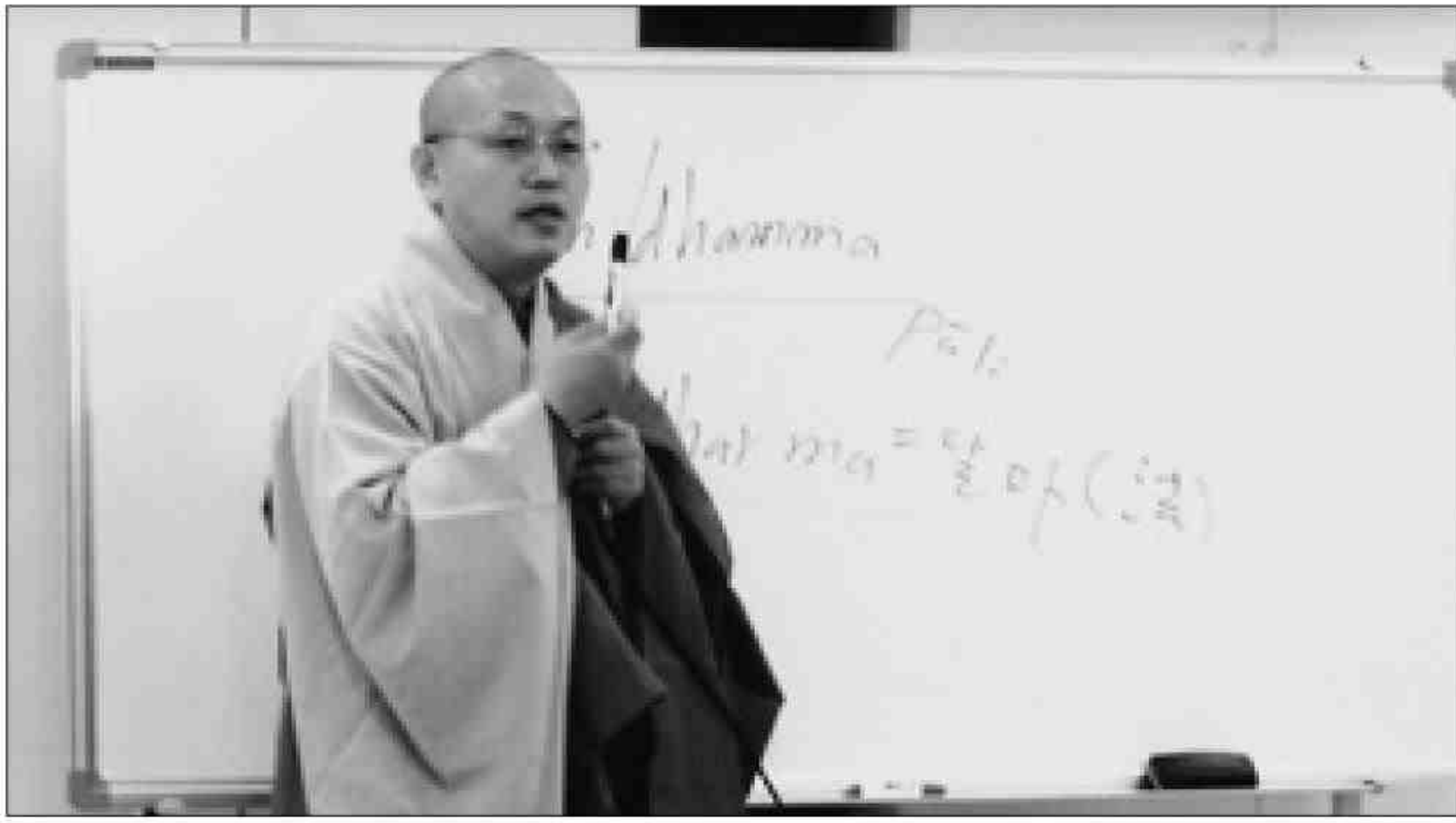
12월 19일 서옹큰스님 다비식



12월 21일  
동지 새알운력



12월 23일~29일 자비수참 기도



12월 25일~27일 각목스님 특강  
'아비담마의 교학과 수행법'



12월 29일 광주 증심사 오백나한 이운식



12월 31일 반결제 원족산행



2004년 1월 2일  
장작운력



1월 11일 영조스님 송광사 주지 취임



1월 22일 설날 윷놀이



---

##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꾸뚝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503490-01-001097 예금주: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810-02-120594 예금주: 박채균  
연락처: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 강원 해광스님 061)755-5302

---

## 강의(특강) 테잎 보급

송광사에서는 특별 강의 테잎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카세트 테잎

지운스님 · 법화경 1~2 33개 | 50,000원  
정연스님 · 인도철학 18개 | 25,000원  
정화스님 · 유식 30송 11개 | 25,000원  
정화스님 · 중론中論 23개 | 30,000원  
해거스님 · 도덕경 16개 | 23,000원  
고우스님 · 선요禪要 25개 | 30,000원

구입처: 송광사 강원 지장 ☎061)755-5302(전화주문 받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501676-01-000689 송광사 지장

테잎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

##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광주 증심사·영암 도갑사·옥과 성륜사·서울 길상사·강화 보문사·부산  
관음사·광주 원각사·화순 운주사·양산 통도사·전남 백양사·비로사  
·강원충동문화·구산동문화·반야월님·명진문불자회·법련사·박정련화  
님·천진행님

###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인애원·보국사·서울 관음사·고흥 금탑사·금탑선원·부산 관음사·고  
성 계승사·비로사·제주 남국선원·광주 약사암·무주 안국사·강릉 성  
원사·광주 정안사·명덕문님·대자행님·옥호광님·비로해님·광주불교  
사암연합합창단

###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조영숙님·류인석님·오용환님·강경희님·김갑숙님·윤미옥님·김수아  
님·김태동님·김연순님·이정애님·이영숙님·김현정님

### 후원안내

「정혜사」誌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 500660-01-001029**

**예금주 : 송광사 정혜사**

## 구독안내

주소변경이나 정기구독을 원하  
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 편집후기

편집위원 중에 누구도 예전에 책  
을 만들어 본 이가 없다. 그리고  
이 길로 나아갈 이도 없다.

이 분야에서 우리는 모두 아마추  
어들이다. 스님 셋이 다섯 평 남  
짓한 다락방에 모여 원고를 읽고  
또 읽고... 원고를 모조리 외울  
때쯤 되어서야 책이 만들어 진다.

왠지 어설픈, 그러나 순수하기에  
아름다운 이 책.

이 책이 나오는 날을 기다리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  
혜사」誌는 계속될 것이다.

## 계미년 동안거 송광사 결재대중



스님이 되어 공부하는 이는  
먼저 돈과 이성을 멀리하라.  
대중에 살 때는 입을 조심하고  
홀로 있을 때는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  
큰스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나쁜 벗을 멀리 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혼침해서 자지 말라.

- 방장스님 법어 中 -



새지은 대웅전大雄殿은 예보던 모습이요.  
부처님 다시 모셔 예같이 존엄尊嚴하고  
예든던 풍경소리 귀에 더욱 익어라.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

**대웅보전** 송광사 대웅보전은 다보탑의 기본 구조인 아자亞字형의 탑과 형태이고 지붕은 겹합작지붕(소슬지붕)이며 108평 규모에 36개의 큰 기둥이 받쳐 있다. 특히 벽주조를 나무의 널빤지로 하여서 건물 전체가 울림통이다.